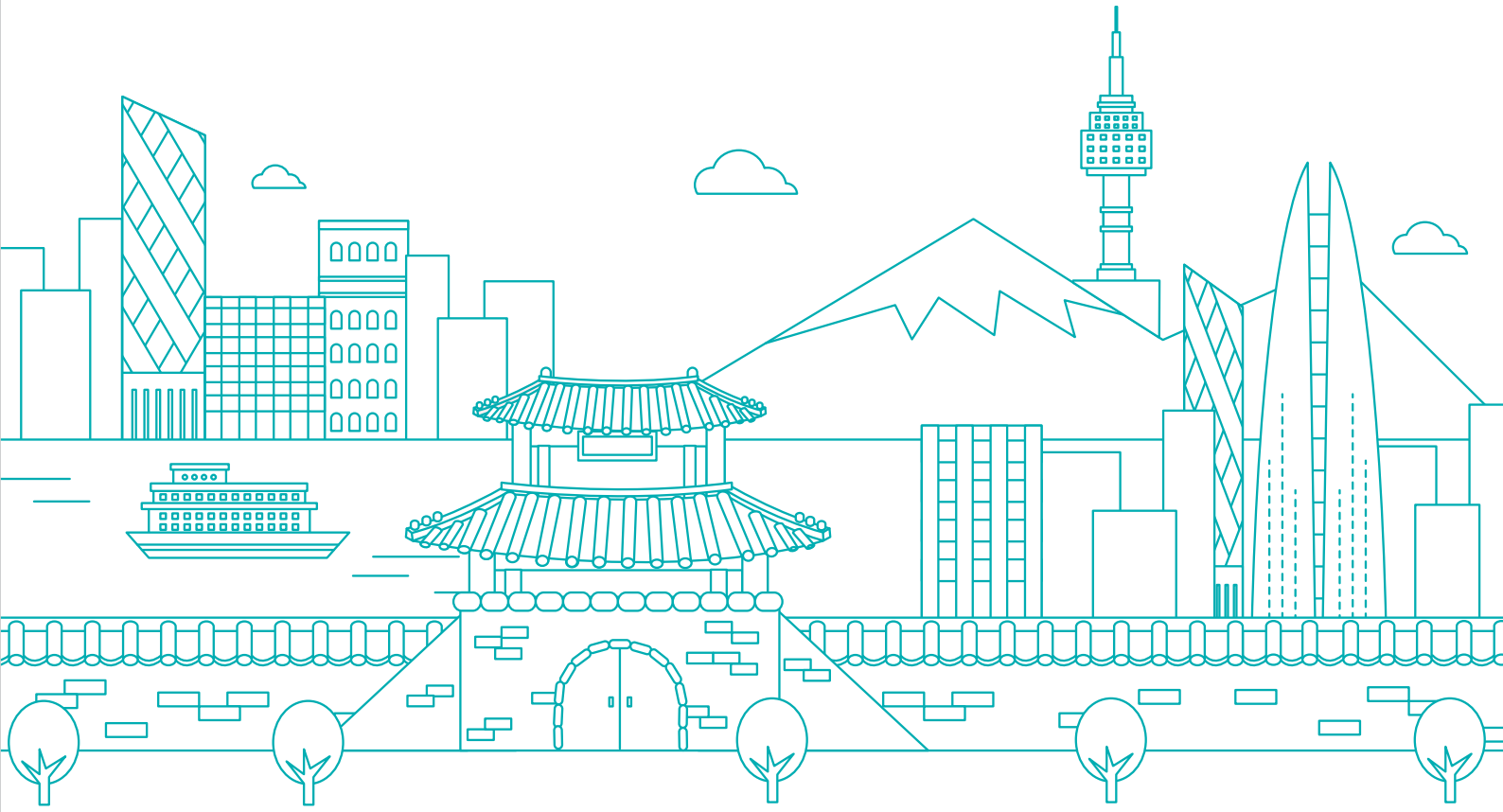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992-01



#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





## 제 출 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 학술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서울연구원장

---



# 목 차

<b>I. 과업 개요</b> .....	<b>3</b>
1. 배경 및 목적 .....	3
1.1 과업 배경 .....	3
1.2 과업 목적 .....	4
2. 내용 및 범위 .....	5
2.1 과업 내용 .....	5
2.2 과업 범위 .....	7
<b>II.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와 균형발전 지표</b> .....	<b>9</b>
1. 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평가체계 .....	11
2. 균형발전 지표 .....	12
2.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2) 검토 .....	12
2.2 정책성과 지표 및 분석 방법 .....	16
<b>III.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b> .....	<b>25</b>
1. 정책성과 모니터링 개요 .....	27
2. 분야별 모니터링 .....	28
2.1 산업·일자리 .....	28
2.2 생활SOC .....	34
2.3 교통 .....	39
2.4 주거 .....	45
2.5 교육 .....	49
3. 종합 .....	53

**IV. 사업의 진척상황 모니터링 ..... 55**

- 1. 진척상황 모니터링 개요 ..... 57
- 2. 사업 진척도 점검 결과 ..... 58
- 3. 종합 ..... 70

**V. 종합평가 ..... 71**

- 1. 종합평가의 개념 ..... 73
- 2. 분야별 종합평가 ..... 76
  - 2.1 산업·일자리 ..... 76
  - 2.2 생활SOC ..... 77
  - 2.3 교통 ..... 80
  - 2.4 주거 ..... 82
  - 2.5 교육 ..... 84
- 3. 종합 ..... 86

**부록1. 대시민 공개자료 ..... 89**

- 1. 개요 ..... 91
- 2. 분야별 지표 ..... 92

## 표 차례

[표 II-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분야별 추진전략, 정책과제 및 88개 이행과제	12
[표 II-2]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산업·일자리	16
[표 II-3]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생활SOC	18
[표 II-4]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교통	19
[표 II-5]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주거	20
[표 II-6]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교육	21
[표 IV-1] 진척상황 점검 대상 기관 및 이행과제 수	57
[표 IV-2] 5대 분야별 84개 이행과제 유형화	58
[표 IV-3] 5대 분야별 84개 이행과제 점검 결과	59
[표 IV-4] 분야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의 사업 진척도	70
[표 V-1] 산업·일자리 정책성과 및 진척도	76
[표 V-2] 생활SOC 정책성과 및 진척도	78
[표 V-3] 교통 정책성과 및 진척도	80
[표 V-4] 주거 정책성과 및 진척도	82
[표 V-5] 교육 정책성과 및 진척도	84

## 그림 차례

[그림 II-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평가체계	11
[그림 II-2] 정책성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방법	24
[그림 III-1] 지역 내 총생산 성과 평가 결과	28
[그림 III-2] 내부통근율 성과 평가 결과	29
[그림 III-3] 신규 창업 사업체 수 성과 평가 결과	30
[그림 III-4] 신규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 성과 평가 결과	31
[그림 III-5]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성과 평가 결과	31
[그림 III-6] 직주균형지수 성과 평가 결과	32
[그림 III-7]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성과 평가 결과	33
[그림 III-8] 문화환경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34
[그림 III-9] 도서관 접근 소외인구 성과 평가 결과	35
[그림 III-10]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성과 평가 결과	36
[그림 III-11]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성과 평가 결과	37
[그림 III-12] 1인당 보건예산액 성과 평가 결과	38
[그림 III-13]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 성과 평가 결과	39
[그림 III-14]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지하철) 성과 평가 결과	40
[그림 III-15] 통근·통학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41
[그림 III-16]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 성과 평가 결과	43
[그림 III-17]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성과 평가 결과	43
[그림 III-18] 주요도로 통행속도 성과 평가 결과	44
[그림 III-19] 주거환경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45
[그림 III-20] 소득 대비 임대료(중위수) 성과 평가 결과	46
[그림 III-21]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성과 평가 결과	47



[그림 Ⅲ-22]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성과 평가 결과 .....	48
[그림 Ⅲ-23] 주차장 확보율 성과 평가 결과 .....	48
[그림 Ⅲ-24] 교육환경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	49
[그림 Ⅲ-25]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 성과 평가 결과 .....	50
[그림 Ⅲ-26]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성과 평가 결과 .....	51
[그림 V-1] 결과지표와 성과지표 비교를 통한 종합평가의 개념 .....	74
[그림 V-2] 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평가 및 종합평가의 한계 .....	75
[그림 V-3] 산업·일자리 종합평가 그래프 .....	77
[그림 V-4] 생활SOC 종합평가 그래프 .....	79
[그림 V-5] 교통 종합평가 그래프 .....	81
[그림 V-6] 주거 종합평가 그래프 .....	83
[그림 V-7] 교육 종합평가 그래프 .....	85
[그림 V-8] 5대 분야 종합평가 .....	86



# | 과업 개요

---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및 범위



# 1. 배경 및 목적

## 1.1 과업 배경

### 2022년 12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발표

서울시는 2022년 12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서울시의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5개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 5대 추진전략, 10개 정책과제, 88개 이행과제와 다양한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서울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 균형발전 지표의 기준점 설정을 위한 시범 성격의 1차 연도 성과 모니터링 필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제6조에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 정도 및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진단·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2년에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평가의 결과가 차기 정책 및 사업추진에 연계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민이 알기 쉬운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진단·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략 및 핵심과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지표(안)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지표(안)는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재조정하고, 데이터의 구축 가능성 및 유용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점 설정을 위한 1차 연도의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1.2 과업 목적

이 과업의 목적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시범 성격의 1차 연도 성과 모니터링과 기준점 설정,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균형발전정책의 전반적인 평가 및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세부목적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2022년도에 설정한 지역균형발전 지표(안)를 현재의 균형발전계획에 맞추어 조정하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점검·평가와 기준점을 설정하는 시범 성격의 1차 연도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은 크게 진척상황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성과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둘째,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균형발전정책의 전반적인 평가 및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진척상황 모니터링과 정책성과 모니터링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및 사업추진 방향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시민 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의 결과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 대시민 공개자료를 작성한다.

## 2. 내용 및 범위

### 2.1 과업 내용

이 과업의 내용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2022년에 설정한 지표(안)를 최종 확정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것이다. 먼저 정책성과 지표는 2022년 12월 최종 확정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과 데이터 구득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분야별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21개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이들 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진척상황 지표는 서울시 각 부서의 균형발전계획 관련 사업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이행과제별 목표 대비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위에서 재구성한 정책성과 지표를 기초로 분야별 전략적 목표(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의 정책성과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2019년과 현재 시점의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그리고 지표 값의 개선수준을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과거 년도 대비 지표 값의 개선수준을 포함한 이유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지표 값이 하락하면서 차이가 줄어들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차이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진전이 보임”, “대체로 진전이 보임”, “노력이 필요”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지역균형발전계획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정책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업 진행 시점에서는 2023년도의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1년을 현재 시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필연적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진행되는 진척상황 모니터링과의 비교 및 종합평가에서 해석상의 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과제와 연관된 서울시 각 부서의 사업별 목표 대비 진행 상황 및 달성도를 점검하는 진척상황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서울시의 사업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를 분석하였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5대 분야 84개 과제(실행력 제고의 4개 과제 제외)를 공정진행 “완료”, “정상추진”, “지연”의 3개 등급으로 유형화하여 진척상황을 점검하였다.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진행된 정책성과 모니터링과 진척상황 모니터링을 상호 비교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사업별 진척도(결과)와 지표별 정책 성과를 비교하여 향후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정책성과 모니터링과 진척상황 모니터링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즉,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2021년 또는 2022년을 현재 시점으로 하며, 진척상황 모니터링은 2023년 12월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에 따른 정책성과의 평가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종합평가에서 성과지표는 정책 추진의 근거로 해석하였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전에 시행될 모니터링에서는 진척상황과 정책성과의 상호 비교를 통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준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분석한 균형발전 성과 및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대시민 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의 선정 근거(지표의 정의, 산정식 및 출처)를 제시하고, 지표 분석을 종합하여 현상과 성과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시민 공개자료는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 2.2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이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을 기준으로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이행과제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단, 분석을 위한 공간 단위는 25개 자치구를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9개 중생활권을 대상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

이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가장 최신의 자료 구득이 가능한 2022년을 현재 시점으로 하였으며, 3년의 기간을 둔 2019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지표에 따라 2022년의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21년을 현재 시점으로 하였다. 또한, 진척상황 모니터링은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 II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와 균형발전 지표

---

- 1 균형발전 모니터링·평가체계
- 2 균형발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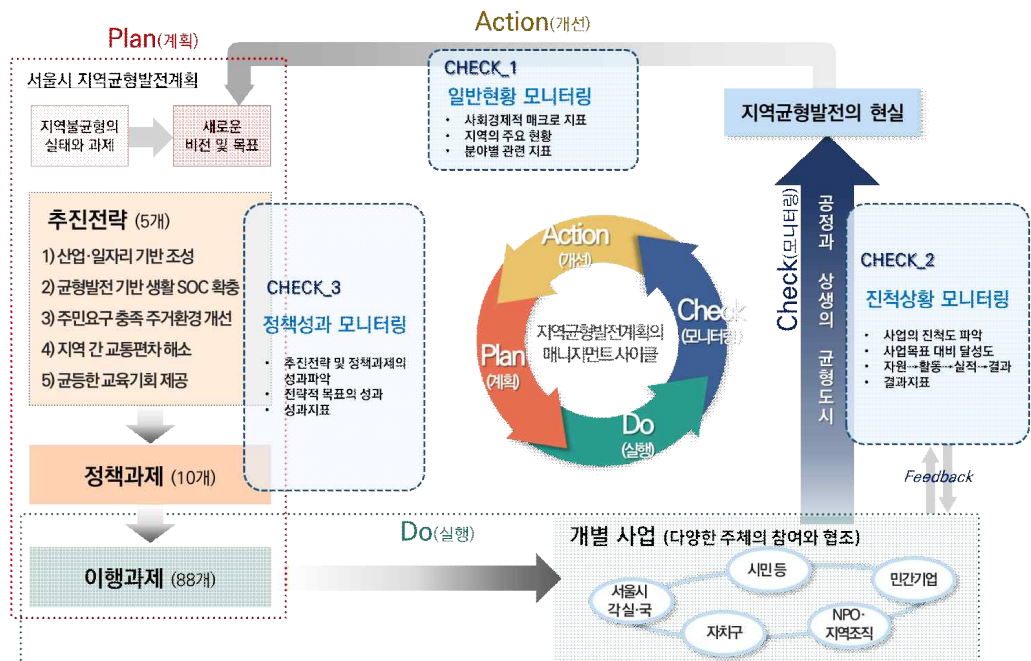


# 1. 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평가체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평가체계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과 성과평가가 차기의 시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 P-D-C-A 방식을 고려한 평가·추진 체계로 구성된다. 이 과업에서는 진척상황 모니터링과 정책성과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한다.

진척상황 모니터링은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관련 부서의 평가지표(결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의 진척도(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모니터링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5개 추진전략 및 10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전략적 목표의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즉,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여 기준 연도 대비 지표 값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II-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평가체계

## 2. 균형발전 지표

### 2.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2) 검토

2022년 12월, 서울시는 새로운 시정의 방향과 맞는 새로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분야별로 추진전략 1개, 정책과제 2개를 설정(총 15개)하여 실행력을 제고한다. 이 계획의 분야별 추진전략, 정책과제 및 88개 이행과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분야별 추진전략, 정책과제 및 88개 이행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I.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I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서북권 : 미래산업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중심 기능 강화
		I-I-1. 상암수색 일대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
		I-I-2. 상암 디지털미디어 산업 고도화 및 M&E, 4차 산업형 핵심 일자리 창출
		I-I-3. 서울혁신파크 복합개발
		I-I-4. 홍제역세권 랜드마크 개발
		I-I-5. 경의선혁신벨트 구축
		서남권 : 신성장 산업거점 및 금융산업 도심 생태계 육성
		I-I-6. 김포공항 일대 서남권 복합산업 혁신거점 조성
		I-I-7. 경인로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거점 개발
		I-I-8. 옛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입체복합개발 마스터플랜
		I-I-9. 온수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I-I-10.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I-I-11. 마곡 혁신적 R&D 클러스터 조성
		I-I-12. 서울대 인근 서남권 창업허브 조성 추진
I-I-13.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I-I-14. 서서울 미술관 건립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I-①-15. 新도심 공원의 재구조화, 여의도 공원 3.0
		동북권 :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I-①-16.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
		I-①-17. 공릉동 IT·바이오·나노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화
		I-①-18. 홍릉: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I-①-19. 왕십리 역세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I-①-20.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 개발
		I-①-21. 상봉·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I-①-22.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I-①-23. 동부화물터미널 복합개발
		I-①-24. 강북구청 복합화 및 수유역 일대 지역거점화
		I-①-25. 서울숲 주변 혁신적 수변도시공간 조성
		동남권 : 글로벌 상업 업무기능 강화
		I-①-26. 양재: 신성장산업의 기반, 서울 AI 플랫폼 조성
		I-①-27. 수서: 글로벌 로봇산업 클러스터
		I-①-28. 강동, ICT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거점 육성
		I-①-29.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I-①-30. 서울 글로벌 마이스 허브 조성
		I-①-3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I-①-32.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I-①-33. 장지차고지 입체화(체육문화시설 건립)
		도심권 : 역사문화 도심으로의 위상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I-①-34.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수립
		I-①-35. 용산공원 조성
		I-①-36.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추진
		I-①-37.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RCEP 기능 유치
		I-①-38.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
	②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	I-①-39.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및 창업거점 조성
		I-①-40. 용산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
		I-①-41. 패션제조혁신 클러스터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I-①-42. 동대문: 뷰티산업 클러스터
		I-①-43. DDP를 디자인문화와 디자인산업 중심으로 육성
		I-①-44. 도심제조업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I-①-45. 조선시대 최고관부 의정부지 정비를 통한 역사성 회복
		I-①-46.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I-②-1. 저발전지역 신규 상업지역 지정
		I-②-2.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I-②-3. 서울의 혁신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II. 균형발전기반 생활SOC 확충	③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II-③-1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문화 확대
		II-③-2. 공공·작은도서관 확대 운영
		II-③-3. 지역균형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II-③-4. 지역균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II-③-5.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④ 생활 SOC 미래수요 대응	II-④-1. 서울시 미래형 생활SOC 공급전략 마련
		II-④-2.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강화
		II-④-3. 보건지소 확충 운영 지원
		II-④-4.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II-④-5.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III.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⑤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III-⑤-1.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로철도망 구축
		III-⑤-2.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III-⑤-3.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설치
		III-⑤-4. 버스노선 조정 및 관리·운영
		III-⑤-5.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⑥ 지역간 이동성 개선	III-⑥-1.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방안 마련(서남권일대)
		III-⑥-2.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
		III-⑥-3. 간선도로 지하화(동부간선도로)
		III-⑥-4. 간선도로 지하화(경부간선)
		III-⑥-5. 간선도로 지하화(강변북로 재구조화)
		III-⑥-6.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III-⑥-7. 이수·과천복합터널 추진
	IV.	⑦ 주거안정을 위한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Ⅳ-7-2. 역세권 활성화
		Ⅳ-7-3.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모아주택, 모아타운)
		Ⅳ-7-4.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8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Ⅳ-8-1. 저층 주거지 및 노후 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
Ⅳ-8-2. 노후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확대		
V.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9 지역·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 조성	V-9-1.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서울런
		V-9-2. 초·중·고등학교 문화공연 관람 지원
		V-9-3.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V-9-4. 장노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수용역량 강화
		V-9-5. 평생학습도시 핵심 브랜드, 서울시민대학 운영
	10 교육 인프라 개선	V-10-1.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
		V-10-2.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VI.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11 균형발전 자원확보	VI-11-1. 공공기여 자원 광역적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12 균형발전정책 사전점검	VI-12-1. 균형발전정책 사전조정제도 도입
	13 균형발전정책 관리 강화	VI-13-1. 균형발전정책 점검 및 평가
		VI-13-2. 지속적인 균형발전 의제발굴

## 2.2 정책성과 지표 및 분석 방법

### 1) 정책성과 지표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추진전략 5개, 정책과제 10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이 과업에서는 기존 「서울시 균형발전 지표 및 평가체계」 연구에서, 로직모델 (Logic Model), 분야별 지향점, 전문가 FGI 등을 통해 도출한 정책성과 지표를 활용한다. 단, 현 시점에서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표로 대체하거나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간 지표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는 서울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측정한 정성지표와 통계 데이터 기반의 정량지표로 구성된다. 5개의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교통, 주거, 교육)에 대해 추진전략 지표 12개, 정책과제 지표 21개, 총 33개의 정책성과 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야별 지향점에 따라 설정된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 및 지표별 산출방식, 자료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11-2]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산업·일자리

구분		지향점	지표
산업·일자리	추진전략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반 강화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
	정책과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신규 창업 사업체 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일자리 자족 기반 확충	지역자원을 활용한 혁신 기반 조성 및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
			신규 창업 종사자 수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직주균형지수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쇼핑·업무 통행의 유입량	

-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
  - 산출방식 : (기준연도 GRDP ÷ 비교연도 GRDP)<sup>-기간-1</sup>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
- 내부통근율
  - 산출방식 : (A지역 출발→A지역 도착 통근자수 합 ÷ A지역의 출발 통근자수 합)×100
  - 자료출처 :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 신규 창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산출방식 : 당해연도에 신규 창업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자료출처 :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 산출방식 : (기준연도 상용근로자 수 ÷ 비교연도 상용근로자 수)<sup>-기간-1</sup>
  - 자료출처 : 전국사업체 조사
- 직주균형지수
  - 산출방식 : 종사자 수 ÷ 취업자 수
  - 자료출처 :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인구총조사
-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 산출방식 :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 종사자 수) × 100
  - 자료출처 :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 쇼핑·업무 통행의 유입량
  - 산출방식 : 목적통행량 중 쇼핑 및 업무 목적의 도착통행량
  - 자료출처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표 11-3]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생활SOC

구분		지향점	지표	
생활SOC	추진전략	균형발전기반 생활SOC 확충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질 높은 생활편의시설 공급	문화환경 만족도	
			생활권공원 접근성(소외인구)	
			도서관 접근성(소외인구)	
	정책과제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도보권 내, 모두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쾌적한 문화·여가 공간의 확충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생활SOC 미래수요 대응	건강한 미래가 보장된 생활권 조성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소외인구)  1인당 보건예산액

- 문화환경 만족도
  - 산출방식: 리퀴드 5점 척도→10점 환산
  - 자료출처: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생활권공원 접근성(소외인구)
  - 산출방식: (생활권공원 소외인구 ÷ 지역 내 전체 인구 수) × 100
  - 자료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국토정보플랫폼 격자인구
- 도서관 접근성(소외인구)
  - 산출방식: (도서관 소외인구 ÷ 지역 내 전체 인구 수) × 100
  - 자료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토정보플랫폼 격자인구
- 10만인 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 산출방식: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 지역 내 전체 인구 수) × 100,000
  - 자료출처: 서울시, 서울시 기본통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 산출방식: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전체보육 아동 수) × 100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소외인구)
  - 산출방식 : (노인복지시설 소외지역 고령인구 ÷ 지역 내 고령인구) × 100
  - 자료출처 : 서울복지포털,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고령인구
- 1인당 보건예산액
  - 산출방식 : 자치구 보건 예산 총액 ÷ 지역 내 전체 인구 수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표 II-4]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교통

구분		지향점	지표	
교통	추진전략	균형발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쾌적한 공공교통 확충과 정체 없는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지하철)
				우회도
				통근·통학 만족도
	정책과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교통 중심의 시민 이동권 확대	대중교통 소외인구 비율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지역간 이동성 개선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증가	주요도로 통행속도	
			중심지로의 이동거리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지하철)
  - 산출방식 : 리워드 5점 척도→10점 환산
  - 자료출처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우회도
  - 산출방식 : A지역과 B지역 사이의 직선거리 ÷ A지역과 B지역 사이의 대중교통 이동시간
  - 자료출처 : 교통카드데이터
- 통근·통학 만족도
  - 산출방식 : 리워드 5점 척도→10점 환산
  - 자료출처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대중교통 소외인구 비율
  - 산출방식: (지하철역 500m외 인구 ÷ 지역 내 전체 인구 수) × 100
  - 자료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격자인구
-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 산출방식: (승차인원 ÷ 정원) × 100
  - 자료출처: 서울교통공사
- 주요도로 통행속도
  - 산출방식: 자치구별 주요도로 통행속도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
- 중심지(도심·광역중심)로의 이동거리
  - 산출방식: 행정동 → 중심지까지의 최소 거리(중심점 기준)
  - 자료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표 II-5]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주거

구분		지향점	지표
주거	추진전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만족도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소득대비 임대료
	정책과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정주성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향상	주차장 확보율	

- 주거환경만족도
  - 산출방식: 리퀴드 5점 척도→10점 환산
  - 자료출처: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소득대비 임대료(RIR)
  - 산출방식 : (월임차료 ÷ 가구 월소득) × 100
  - 자료출처 : 주거실태조사
-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 산출방식 : (기준연도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 비교연도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sup>-기간-1</sup>
  - 자료출처 : 건축통계정보시스템
-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 산출방식 : 임대주택수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자료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실태조사, 인구총조사
- 주차장 확보율
  - 산출방식 : (주거지역 주차장면수 ÷ 등록된 자동차 수) × 100
  - 자료출처 : 열린데이터광장

[표 II-6]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_교육

구분		지향점	지표
비 교 지 표	추진전략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생애주기별 고른 교육기회 및 인프라 제공으로 서울시민 교육 만족도 향상
	정책과제	지역·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 조성	연령별, 계층별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환경 격차 완화
			교육 인프라 개선
			교육환경 만족도 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

- 교육환경 만족도
  - 산출방식 : 리워드 5점 척도→10점 환산
  - 자료출처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
  - 산출방식: 교육세액 ÷ 총 학생 수(초·중·고)
  - 자료출처: 서울통계연보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 산출방식: (평생학습 참여자 수 ÷ 성인인구 수) × 100
  - 자료출처: 평생교육통계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
  - 산출방식: (청소년시설 수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인구) × 100,000
  - 자료출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현황
  
-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
  - 산출방식: (동네배움터 개수 ÷ 만 25세 이상 성인인구) × 100,000
  - 자료출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현황



## 2) 정책성과 지표 분석 방법

###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를 갖는다. 즉, 0에 가까울수록 불균형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지니계수는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개념적으로 보여주기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분포가 일정할 경우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간 격차가 크더라도 균형이 맞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갖는다.

### 5분위 배율

위에서 설명한 지니계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불평등 또는 양극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5분위 배율을 사용할 수 있다. 분위배율은 지표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규모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집단별 평균을 서로 비교한 값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지표별로 오름차순 순서에 따라 값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5분위에 해당하는 값(최상위 20%)이 수치가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값(최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5분위 배율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지역 간 격차가 적고, 값이 커질수록 지역 간 격차는 커지게 된다.

### 정책성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방법

이 과업에서는 지역불균형 및 지역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함께 사용하였다. ‘지니계수  $\geq$  0.4, 5분위 배율  $\geq$  4.0’인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모두 심각, ‘지니계수  $\geq$  0.4, 5분위 배율  $<$  4.0’인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하지만 양극화는 양호, ‘지니계수  $<$  0.4, 5분위 배율  $\geq$  4.0’인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은 양호하지만 양극화는 심각, ‘지니계수  $<$  0.4, 5분위 배율  $<$  4.0’인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과거)연도 대비 기준연도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변화(개선)했는지를 함께 살

펴보았다.

우선, 성과지표별로 비교(과거)연도 대비 기준연도의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의 차이는 모두 개선되었거나, 둘 중 하나만 개선되었거나, 모두 개선되지 않은 경우로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비교(과거)연도 대비 기준연도의 지표별 지역(자치구)의 수치 변화는 15개 이상의 지역(자치구)에서 개선이 됐으면 ‘양호’, 15개 미만의 지역(자치구)에서 개선을 보이면 ‘미흡’으로 구분하였다.

지표별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비교(과거)연도 대비 기준연도 지역의 수치 변화를 종합한 성과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다. 예를 들어, ‘가’ 지표의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중 지니계수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하나의 값만 개선’), 비교(과거)연도 대비 기준연도의 수치 변화가 10개의 자치구에서 개선됐으면(‘미흡’), 성과평과는 ‘노력이 필요’로 평가하였다.

### (기준 연도-비교 연도) 성과지표별 지니계수 & 5분위 배율 차이와 지표 값의 개선수준에 따라 추진전략·정책과제 목표 성과 평가

평가 기호	성과평가	지니계수 & 5분위 배율	과거 연도 대비 변화
↑	진전이 보임	모두 개선	양호 (15개 이상 자치구에서 개선)
↗	대체로 진전이 보임	모두 개선	미흡 (14개 이하 자치구에서 개선)
		하나의 값만 개선	양호 (15개 이상 자치구에서 개선)
→	노력이 필요	하나의 값만 개선	미흡 (14개 이하 자치구에서 개선)
		모두 개선되지 않음	-

(예시) '가' 지표의 지니계수 & 5분위 배율 차이

지니계수 (불균형)		5분위 배율 (양극화)	
2019년	2022년	2019년	2022년
0.37	0.34	5.22	5.76

- 지니계수 차이:  $0.34 - 0.37 = 0.03(-)$  → 개선됨
- 5분위 배율 차이:  $5.76 - 5.22 = 0.54(+)$  → 개선되지 않음
- ※ 지니계수 **하나의 값만 개선**, 과거 연도 대비 10개 자치구 개선 **미흡** → **노력이 필요**

[그림 11-2] 정책성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방법

# III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

- 1 정책성과 모니터링 개요
- 2 분야별 모니터링
- 3 종합



# 1. 정책성과 모니터링 개요

##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제시하는 추진전략·정책과제 정책성과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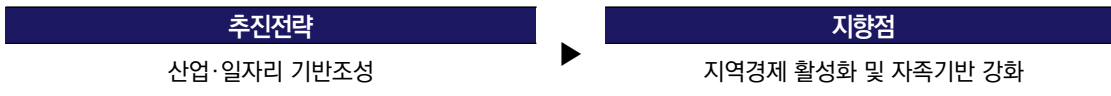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5대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별 추진전략(1개) 및 정책과제(2개)를 대상으로 전략적 목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였다<sup>1)</sup>.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3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며,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비교(과거)연도 대비 기준연도 지표값의 변화를 종합하여 현 상황의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그리고 자치구별 개선의 정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성과 평가 결과는 크게 ‘진전이 보임’, ‘대체로 진전이 보임’, ‘진전이 보이지 않음’ 3가지로 나타내었다.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총 26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정의, 측정 방법, 자치구별 과거 대비 현재 변화,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최근 신설된 데이터 등은 과거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하여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과지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평가 불가능한 7개 지표에 대해서는 현황만 제시하였다.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2022년 12월에 발표되고, 계획에 따른 개별사업들은 진행 초기 단계여서 본 과제에서 실시한 정책성과 모니터링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본 과제에서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대부분 2022년 데이터) 모니터링에 대한 baseline(기준선)을 구축한다는 점에 의미를 둠

## 2. 분야별 모니터링

### 2.1 산업·일자리




#### 1) 지역 내 총생산 증감률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은 일정 기간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 시장가격 합의 연평균 증감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 내 총생산은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대체로 국가 GDP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 내 총생산 지표를 활용하면 지역의 경제 활동의 규모 및 성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며, 경제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내 총생산 증감률은 과거(비교연도) 지역 내 총생산 대비 현재(기준연도) 지역 내 총생산의 연평균 증감 비율을 의미한다.

2020년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은 444,544,909 백만원으로, 2019년 435,927,212 백만원 대비 연평균 2.0% 증가하였다.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한 자치구는 총 16개이며, 감소한 자치구는 총 9개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증가하여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약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 증감률로 살펴보았을 때, 산업·일자리 분야의 추진전략 ‘산업·일자리 기반조성’에 대한 성과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노력이 필요
지역 내 총생산 증감률	악화	악화	양호	

[그림 III-1] 지역 내 총생산 성과 평가 결과

## 2) 내부통근율

내부통근율은 A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지 않고 A지역 내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로, 내부통근율이 높을수록 주거지 주변에 가용일자리 수가 많다는 것을 (직주 근접성이 높음) 의미한다.

내부통근율의 산정식은 A지역에서 출발하는 통근자 수의 합 대비 A지역에서 출발하여 A지역으로 도착하는 통근자수의 합의 비율로 나타난다.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시의 내부통근율은 29.6%에서 31.6%로 2%p 상승하여 직주근접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한 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개선되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모두 개선되어,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근율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산업·일자리 분야의 추진전략 '산업·일자리 기반조성'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내부통근율	개선	개선	양호

▶▶

성과 평가
 <b>진전이 보임</b>

[그림 Ⅲ-2] 내부통근율 성과 평가 결과

### 3) 신규 창업 사업체 수

지역에 새롭게 창업한 사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되므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2021년 기준 서울시의 신규 창업 사업체 수는 147,328개로 2019년 114,120개 대비 약 2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두 개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개선되었다.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개선되었으며, 신규 창업 사업체 수의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사업체 수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산업·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 진전이 보임
신규 창업 사업체 수	개선	개선	양호	

[그림 Ⅲ-3] 신규 창업 사업체 수 성과 평가 결과

### 4) 신규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

지역에 새롭게 창업한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서울시의 신규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303,121명으로 2019년 355,297명 대비 약 14.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도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개선되어, 신규 창업 사업체 종사자 수의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일자리 분야의 정



책과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는 대체로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신규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	개선	개선	미흡	

[그림 Ⅲ-4] 신규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 성과 평가 결과

## 5)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상용직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통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만약, 실업률이 낮더라도 상용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안정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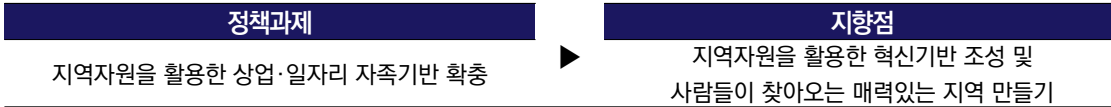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은 과거(비교연도) 상용직 근로자 수 대비 현재(기준연도) 상용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감 비율을 나타낸다.

2021년 서울시 상용근로자 수는 4,011,989명으로 2019년 3,614,190명 대비 약 5.4%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두 개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개선되었다.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상용직 근로자 수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로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산업·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악화	악화	양호	

[그림 Ⅲ-5]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성과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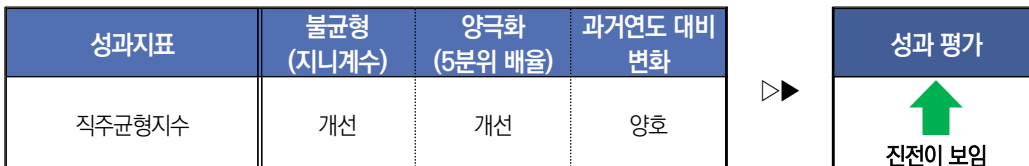


## 6) 직주균형지수

직주균형지수는 지역의 취업자 수 대비 종사자 수 비율로 직주균형지수가 1이 넘으면 취업자 수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종사자 수가 많아 지역의 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직주균형지수는 1.19로 2015년 (1.09) 대비 높아졌다. 자치구별로는 두 개 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개선되었다.

2015년 대비 2020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개선되었으나, 그 수치를 보면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주균형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산업·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에 대한 성과는 23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는 점,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가 2015년 대비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의 수치는 여전히 심각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I-6] 직주균형지수 성과 평가 결과

## 7)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된다. OECD에서는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 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 등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역의 전체 종사자 중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종사자 중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2.7%로 2019년 29.9% 대비 2.8%p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모든 자치구에서 개선되었다.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개선되었으며,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을 활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산업·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 진전이 보임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개선	개선	양호	

[그림 Ⅲ-7]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성과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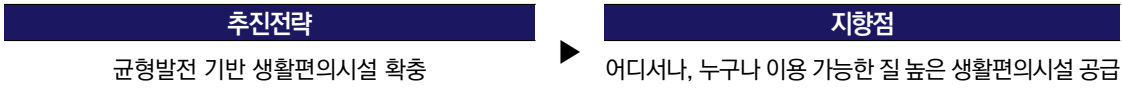
## 8) 쇼핑·업무 통행의 유입량

쇼핑 및 업무를 목적으로(목적통행량) 지역에 유입된 통행량을 의미하며, 쇼핑·업무 통행량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수도권 내로 한정)에서 유입된 통행량도 포함하였다. 쇼핑·업무 통행량은 과거 데이터의 구득이 불가능하여 2020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쇼핑·업무 통행량은 과거 데이터의 구득이 불가능하여 2020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서울 전체 유입된 쇼핑·업무 통행량(통행/일)은 총 2,490,720 통행/일로 나타났다.

2020년 쇼핑·업무 통행량의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양호한 편이다. 향후 공개되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쇼핑·업무 통행 유입량의 변화를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2 생활SOC




### 1)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환경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문화환경 만족도는 5점 척도의 만족도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022년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5.8점으로 2019년 5.7점 대비 1.27%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14개 자치구에서 증가, 11개 자치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문화환경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환경 만족도로 살펴보았을 때, 생활SOC 분야의 추진전략 '균형발전 기반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성과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문화환경 만족도	악화	악화	미흡	 <b>노력이 필요</b>

[그림 Ⅲ-8] 문화환경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 2) 도서관 접근성(소외인구)

최근 공립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습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도서관은 개방된 복합문화공

간으로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sup>2)</sup>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은 지역 인구 중 도보로 10분 이내 도서관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2년 서울의 도서관 접근 소외인구 비율은 25.6%로 2019년 24.8%에 비해 0.8%p 증가하여 도서관 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12개 자치구에서 접근성이 개선되고, 13개 자치구에서 악화되었다.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였다. 지니계수의 수치는 크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 간 양극화는 다소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도서관 접근 소외인구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생활SOC 분야의 추진전략 ‘균형발전 기반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도서관 접근 소외인구 비율	악화	악화	미흡

▶▶

성과 평가
 <b>노력이 필요</b>

[그림 Ⅲ-9] 도서관 접근 소외인구 성과 평가 결과

### 3) 생활권공원 접근성(소외인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서는 생활권공원을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권공원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은 지역 인구 중 도보로 10분 이내 생활권공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활권공원의 경우 과거 데이터의 구득이 불가능하여 2022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2022년 서울의 생활권공원 소외인구 비율은 7.53%로 나타났다. 2022년 생활권공원 소외인구 비율의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권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공원녹지를 발굴 및 조성하여 지역 불균형(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권공원 접근 소외인구 비율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중 공립도서관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과제**

생활편의시설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지향점**

도보권 내, 모두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쾌적한 문화·여가공간의 확충

### 4)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시민문화체육시설은 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등이 포함되며, 시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이다.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시민문화체육시설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서울시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는 2019년 2.6개에서 2021년 2.8개로 5.95%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22개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3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로 살펴보았을 때, 생활SOC 분야의 정책과제 ‘생활편의시설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악화	악화	양호	노력이 필요

[그림 III-10]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성과 평가 결과

## 5)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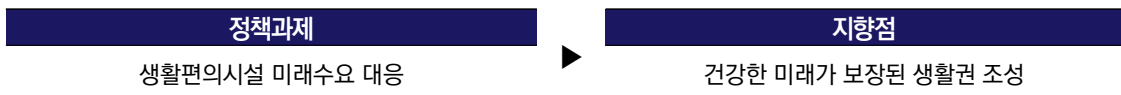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은 전체 보육아동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서울시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은 49.0%로 나타난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은 2019년 39.3%에서 2022년 49.0%로 9.7%p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한 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감소(개선)하였으며, 그 수치도 크지 않아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로 살펴보았을 때, 생활SOC 분야의 정책과제 ‘생활편의시설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 진전이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개선	개선	양호	

[그림 Ⅲ-11]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성과 평가 결과



## 6) 1인당 보건예산액

1인당 보건예산액은 인구 대비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보건예산 총액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연관된 예산으로 보건소 운영, 감염병 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사용된다.

2020년 서울시 1인당 보건예산액은 39.6천원으로 2018년 43.5천원 대비 약 8.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5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고, 20개 자치구에서는 감소하였다.

2018년 대비 2020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개선되었으며, 그 수치도 크지 않아 1인당 보건예산액의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건예산액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생활SOC 분야의 정책과제 ‘생활편의 시설 미래수요 대응’에 대한 성과는 대체로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대체로 진전이 보임
1인당 보건예산액	개선	개선	미흡	

[그림 Ⅲ-12] 1인당 보건예산액 성과 평가 결과

## 7)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소외인구)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은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은 지역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중 도보 10분 이내 노인복지시설 접근이 불가능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유형으로 노인복지관(소규모 포함), 노인교실을 포함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데이터가 갱신되면서 과거 구득이 불가능하여 2023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2023년 서울의 노인복지시설 접근 소외인구 비율은 8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노인복지시설 소외인구 비율의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그 수치가 크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노인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접근 소외인구 비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3 교통




### 1) 대중교통 만족도(버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대중교통(버스) 만족도는 5점 척도의 만족도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022년 서울시민의 버스 이용 만족도는 7.3점으로 2019년 7.0점 대비 3.5% 증가하였다. 자치구별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19개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6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로 살펴보았을 때, 교통 분야의 추진전략 ‘균형발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버스 이용 만족도 수치가 이미 상당히 높고, 지니계수 및 양극화 수치가 미미하게 낮아진 것이므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버스)	악화	악화	양호	 <b>노력이 필요</b>

[그림 III-13]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 성과 평가 결과

## 2)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대중교통(지하철) 만족도는 5점 척도의 만족도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022년 서울시민의 지하철 이용 만족도는 7.4점으로 2019년 7.2점 대비 3.26%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5개 자치구에서 감소하고, 20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지하철 이용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지하철)로 살펴 보았을 때, 교통 분야의 추진전략 ‘균형발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하철 이용 만족도 수치가 이미 상당히 높고, 지니계수 및 양극화 수치가 미미하게 낮아진 것이므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지하철)	악화	악화	양호	노력이 필요

[그림 III-14]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지하철) 성과 평가 결과

## 3) 통근·통학 만족도

통근·통학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통근 및 통학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통근·통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통근·통학 만족도 5점 척도의 만족도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022년 통근·통학 만족도는 6.3점으로 2019년 5.9점 대비 6.78% 증가하였다. 통근·통학 만족도가 증가한 자치구는 20개이고, 감소한 자치구는 4개이며, 과거와 동일한 만족도를 보이는 자치구는 1개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감소(개선)하였으며, 그 수치도 크지 않아 통근·통학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는 양호한 편에 속

한다. 통근·통학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교통 분야의 추진전략 ‘균형발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통근·통학 만족도	개선	개선	양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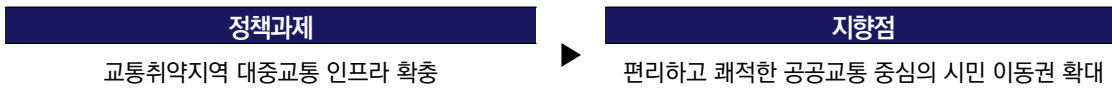
성과 평가
 진전이 보임

[그림 Ⅲ-15] 통근·통학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 4) 우회도

우회도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대비 실제 통행과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선거리가 같더라도 더 많은 이동시간이 소요된다면 대중교통 이동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회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 간 평균 대중교통 통행속도(km/h)를 활용하였으며, 평균 대중교통 통행속도는 행정동 간(중심점) 직선거리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소요된 통행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우회도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동성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우회도의 경우 과거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하여 2018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2018년 우회도에 대한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그 수치가 크지 않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중교통 이동성 취약지역에 대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다.



#### 5) 대중교통 소외인구 비율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도보 5~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반경 500m 이내의 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지하철역 반경 500m 외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지하철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로 보았다.

2022년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은 40.3%로, 2019년 41.6% 대비 1.4%p 감소하였다. 자치구별로는 10개 자치구에서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15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감소(개선)하였으며, 그 수치도 크지 않아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교통 분야의 정책과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	개선	개선	양호	진전이 보임

[그림 Ⅲ-16]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 성과 평가 결과

## 6)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지하철 혼잡도는 열차 정원에 대한 승차 인원의 비율로 지하철 차량 내 사람 혼잡 정도를 의미한다. 지하철(상-하선)의 일일 최대 혼잡도를 산출하여 자치구별로 평균을 내어 지하철 혼잡도를 살펴보았다.

2022년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는 90.5%로, 2019년 84.9% 대비 5.62%p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21개 자치구에서 혼잡도가 증가하고 4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감소(개선)하였으며,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를 살펴보았을 때, 교통 분야의 정책과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는 대체로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개선	개선	미흡	대체로 진전이 보임


[그림 Ⅲ-17]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성과 평가 결과

### 7) 주요도로 통행속도

일반적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승용차의 통행속도가 느린 경우, 차량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차량 통행속도는 중요하다. 보통 일반도로에서 차량 속도 10~20km/h는 정체, 30~40km/h는 서행, 50km/h 이상은 원활하다고 본다.

2022년 서울시 주요도로 통행속도는 23.1km/h로 2019년 23.8km/h대비 2.94% 감소(악화)하였다, 자치구별로는 21개의 자치구에서 통행속도가 감소(악화)하고, 4개의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주요도로 통행속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통행속도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도로 통행속도를 살펴보았을 때, 교통 분야의 정책과제 ‘지역간 이동성 개선’에 대한 성과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노력이 필요
주요도로 통행속도	악화	악화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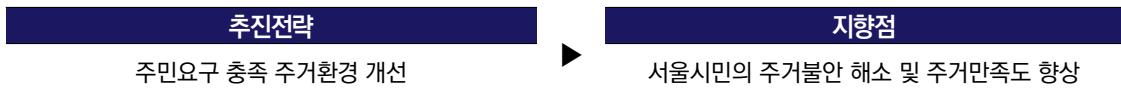
[그림 III-18] 주요도로 통행속도 성과 평가 결과

### 8) 중심지로의 이동거리

중심지에는 업무,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밀집하고 있다. 이 과업에서는 행정동 센터에서 중심지 센터(도심, 광역중심)까지의 최소거리를 구하여 자치구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중심지는 도심 3곳(서울도심, 여의도·영등포, 강남), 광역중심지 7곳(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으로 살펴보았다. 과거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하여 2021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2021년 각 행정동에서 중심지(도심 및 광역중심)로의 이동거리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그 수치가 크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 2.4 주거




### 1)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주거환경(주택, 교통, 녹지, 상하수도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5점 척도의 만족도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021년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7.1점으로 2019년 6.4점 대비 0.7점 (10.9%)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24개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1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환경 만족도로 살펴보았을 때, 주거분야의 추진전략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환경 만족도 수치가 이미 상당히 높고, 지니계수 및 양극화 수치가 미미하게 낮아진 것이므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주거환경 만족도	악화	악화	양호	 <b>노력이 필요</b>

[그림 Ⅲ-19] 주거환경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 2) 소득대비 임대료(중위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가구당 월소득 중에서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쓰는 주택 월임대료 비율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서는 RIR 25% 이상인 경우를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RIR 25% 이내를 적정수준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서울시 소득 대비 임대료(중위수)는 16.9%로 2019년 12.8% 대비 약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도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여 주거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개선되었으며, 그 수치도 크지 않아 소득 대비 임대료의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임대료(중위수)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주거 분야의 추진전략 ‘서울시 민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만족도 향상’에 대한 성과는 대체로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소득 대비 임대료(중위수)	개선	개선	미흡	

[그림 Ⅲ-20] 소득 대비 임대료(중위수) 성과 평가 결과



### 3)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건축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 후 건축 행위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은 일정 기간 정해진 지역 내 건축허가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증감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은 2019년 2,674,242㎡에서 2021년 3,500,665㎡로 연평균 14.4%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16개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9개의 자치



구에서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였고, 그 수치도 비교적 커서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모두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을 살펴보았을 때, 주거 분야의 정책 과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노력이 필요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악화	악화	양호	

[그림 Ⅲ-21]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성과 평가 결과

#### 4)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여기서 말하는 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말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가구를 의미한다.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가 적을수록 취약가구의 주거가 불안정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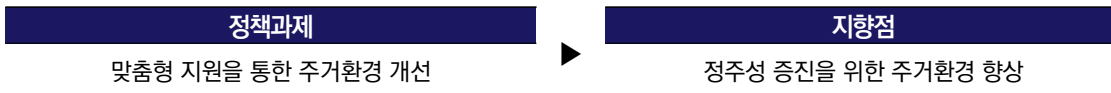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sup>3)</sup>는 2019년 0.60개에서 2021년 0.88개로 46.65%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도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감소(개선)하였으나, 그 수치를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은 양호한 편이지만, 지역 간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를 살펴보았을 때,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간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자치구별 미달가구 수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의 서울시 미달가구 수를 가구 수 비율로 배분하여 분석하였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개선	개선	양호	

[그림 Ⅲ-22]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성과 평가 결과



## 5)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확보율(주택가)은 등록된 자가용 등록대 수에 대한 주거지역 내 주차장 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자가용 등록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한편, 자가용 증가 속도 대비 주택가 주차장 면수는 한정적이어서 주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2019년 103%에서 2021년 104.3%로 1.3%p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14개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11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았을 때,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주차장 확보율	악화	악화	미흡	

[그림 Ⅲ-23] 주차장 확보율 성과 평가 결과

## 2.5 교육




### 1) 교육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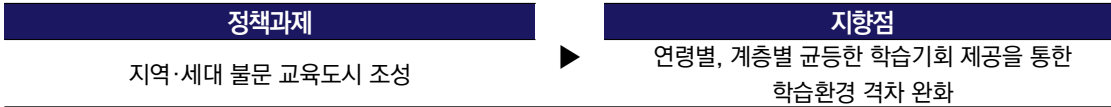
교육환경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교육환경 만족도는 5점 척도의 만족도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022년 서울시민의 교육환경 만족도는 6.1점으로 2019년 5.7점 대비 0.4점(6.9%)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19개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6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22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수치는 크지 않아 교육환경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환경 만족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 분야의 추진전략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성과 평가
교육환경 만족도	악화	악화	양호	 <b>노력이 필요</b>

[그림 Ⅲ-24] 교육환경 만족도 성과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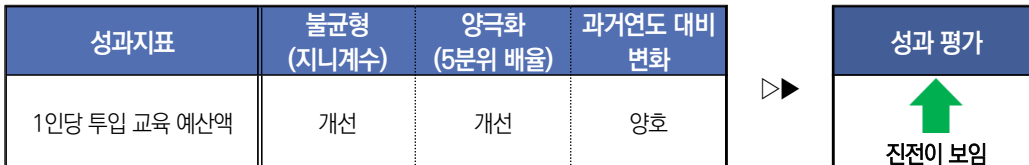


## 2)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한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sup>4)</sup>은 지역별 학생 수 대비 자치구별 교육 세출 결산액을 의미한다.

2021년 서울시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은 480,380원으로 2019년 343,826원 대비 39.7%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23개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2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감소(개선)하였으며, 그 수치도 크지 않아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성과는 진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5]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 성과 평가 결과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과정 이외의 학습활동으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 능력 향상교육 등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복지 증진에 중요하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자치구별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인구비율로 성인인구(만25세-79세) 수 대비 평생학습 참여자 수 비율로 나타난다.

2021년 서울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149.8%로 2019년 240.4% 대비 90.6%p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11개의 자치구에서 증가하고, 14개 자치구에서


4)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최종 교육 예산이며, 본청에서 투입된 교육 예산은 제외되었다.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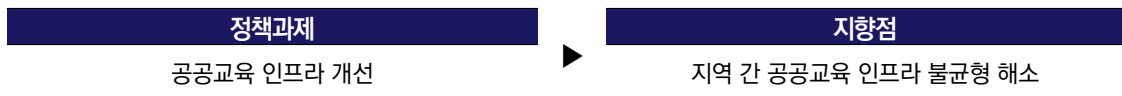
2019년 대비 2021년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 모두 증가(악화)하였고, 그 수치도 상당히 커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 모두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 분야의 추진전략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불균형 (지니계수)	양극화 (5분위 배율)	과거연도 대비 변화
교육환경 만족도	악화	악화	양호

▶

성과 평가
 <b>노력이 필요</b>

[그림 Ⅲ-26]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성과 평가 결과



#### 4)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

청소년시설은 아동·청소년에게 자유롭게 휴식, 활동, 모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과업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만 9세 이상~24세 이하 인구를 청소년으로 보았으며,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청소년시설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의 경우 과거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하여 2021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2021년 서울의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는 8.51개로 나타났다.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와 가장 적은 자치구는 약 9.3배 차이가 난다.

2021년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의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은 그 수치가 비교적 커서 지역 간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5)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

동네배움터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단위로 조성되는 평생학습센터이다. 동네배움터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므로, 이 과업에서는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는 만 25세 이상 성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동네배움터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의 경우 과거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하여 2021년 시점의 현상만을 분석하였다.

2021년 서울의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는 2.6개로 나타났다. 아직도 동네배움터가 존재하지 않는 자치구는 8개에 달한다.

2021년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의 지니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5개의 자치구는 동네배움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5분위 배율은 측정 불가). 시민 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동네배움터를 조성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종합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5대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의 정책성과 모니터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지표 모니터링 결과, 산업·일자리 분야는 내부통근율, 신규창업 사업체 수, 직주 균형지수 등 대부분 지표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과지표 중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추진전략)’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내 총생산 증감률은 권역(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고용기반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정책과제)’을 측정하는 지표인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감소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SOC 분야의 성과지표인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및 1인당 보건예산액은 대체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지표는 모두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체감 지표인 문화환경 만족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문화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지역 간 도서관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열악한 자치구에 공공(작은)도서관 조성·건립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10만인 당 시민문화체육시설은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분야는 성과지표인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소득대비 임대료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지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체감 지표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재개발·재건축) 및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차장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통 분야의 성과지표 통근·통학 만족도,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는 진전이 있는 반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만족도, 주요도로 통행속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체감 지표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만족도(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 노선 및 버스 운영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의 배차간격 단축 및 정시성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도로 통행속도의 개선을 위한

교통정체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성과지표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교육환경 만족도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체감 지표인 교육환경 만족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 확충,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나이와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교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민대학 운영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IV 사업의 진척상황 모니터링

---

- 1 진척상황 모니터링 개요
- 2 사업 진척도 점검 결과
- 3 종합



## 4. 진척상황 모니터링 개요

###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실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제6조에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후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5대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에 대한 84개 이행과제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총 18개이며(실·본부·국 16개, 사업소 1개, 출자·출연기관 1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일괄 취합하였다.

사업 진척상황 모니터링은 결과지표의 성격을 지니며, 자원투입과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또는 진척도(%)로 측정된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행과제별 목표 대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정량평가), 사업의 성과 및 미진한 사업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여(정성평가) 진척상황을 점검하였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2022년 12월에 수립되고, 계획에 따른 개별사업 대부분이 공정 초기 단계여서('23.12월 말 기준) 진척상황 모니터링 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IV-1] 진척상황 점검 대상 기관 및 이행과제 수

기관명	경제 정책실	복지 정책실	도시 교통실	문화본부	관광 체육국	평생 교육국	시민 건강국	여성가족 정책실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이행과제 수	16	2	7	4	3	4	2	2	1
기관명	안전 총괄실	주택 정책실	도시 계획국	균형발전 본부	푸른도시 여가국	미래공간 기획관	디자인 정책관	서울 도서관	평생 교육원
이행과제 수	7	5	6	11	1	10	1	1	1

## 5. 사업 진척도 점검 결과

### 지역균형발전계획 84개 이행과제 공정진행 단계별 유형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5대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교통, 주거, 교육)의 84개 이행과제에 대해 공정진행 단계를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는 점검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 '완료',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정상추진', 최초 일정보다 늦거나 사업공정별 연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연'으로 구분된다. 5대 분야에 대한 84개 이행과제를 유형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2] 5대 분야별 84개 이행과제 유형화

구분	계	산업·일자리	생활SOC	교통	주거	교육
계	84(100%)	49(100%)	10(100%)	12(100%)	6(100%)	7(100%)
완료	3(3.6%)	1(2.0%)	1(10%)	1(8.3%)	-	-
정상추진	53(63.1%)	27(55.1%)	8(80%)	7(58.3%)	4(66.7%)	7(100%)
지연	28(33.3%)	21(42.9%)	1(10%)	4(33.3%)	2(33.3%)	-

전체적으로 사업(이행과제)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과반수로 나타났으며(66.7%),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연된 사업의 수는 산업·일자리(42.9%), 교통·주거(33.3%), 생활SOC(10%)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분야별 이행과제(사업)의 진척상황은 [표 IV-3]과 같으며, 현재 지연되고 있는 28개 사업의 경우 대부분 내·외부 환경의 변화, 이해관계 간 갈등, 사전절차 지연, 관계 기관 간 협의의 장기화로 인한 지연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IV-3] 5대 분야별 84개 이행과제 점검 결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이행과제 점검 결과 (‘23.12. 기준)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산업·일자리)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46개)	서 북 권	상암, 수색 일대 서북권광역중심 육성	지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산업 고도화 및 M&E, 4차 산업형 핵심 일자리 창출	정상추진
			서울혁신파크복합개발	지연
			흥제 역세권 복합개발	정상추진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완료
		서 남 권	김포공항 일대 서남권 복합산업 혁신거점 조성	지연
			경인로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거점 개발	지연
			옛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입체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지연
			온수 공영차고지복합화 개발	지연
			서남권 경제거점 벨트2.0 구축	정상추진
			마곡 혁신적 R&D 클러스터 조성	정상추진
			서울대 인근 서남권 창업허브조성 추진	정상추진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연
			서서울미술관 건립	정상추진
			新도심 공원의 재구조화, 여의도공원 3.0	지연
		동 북 권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	지연
			공릉동 IT·바이오·나노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화	지연
			홍릉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정상추진
			왕십리 역세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연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 개발	지연
			상봉·망우역복합역사 개발	정상추진
			동서울터미널현대화	정상추진
			동부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지연
			강북구청 복합화 및 수유역일대 지역거점화	정상추진
			서울숲주변 혁신적 수변도시공간조성	정상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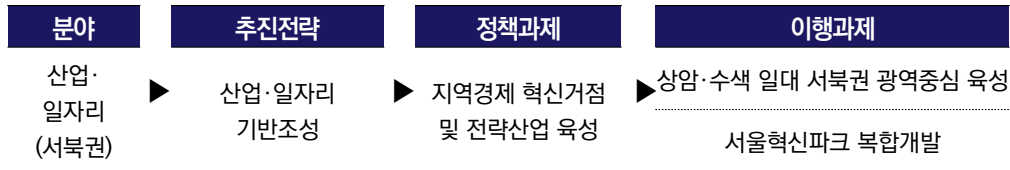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이행과제 점검 결과 ('23.12. 기준)	
		동남권	양재 : 신성장산업의 기반, 서울 AI 플랫폼 조성	정상추진
			수서 : 글로벌 로봇산업 클러스터	정상추진
			강동, ICT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거점 육성	정상추진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지연
			서울 글로벌 마이스허브 조성	지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정상추진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정상추진
			장지차고지입체화(체육문화시설 건립)	지연
		도심권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수립	정상추진
			용산공원 조성	지연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추진	정상추진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RCEP 기능 유치	정상추진
			노들섬글로벌 예술섬으로재조성	정상추진
			용산시제품제작소운영 및 창업거점 조성(과제명 변경)	지연
			용산 창업문화복합허브조성	지연
			패션제조혁신 클러스터	정상추진
			동대문 : 뷰티산업클러스터	지연
			DDP를 디자인문화와 디자인산업 중심으로 육성	정상추진
			도심제조업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정상추진
	조선시대 최고관부의정부지 정비를 통한 역사성 회복	정상추진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지연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3개)	저발전지역신규 상업지역 지정	정상추진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정상추진	
		서울의 혁신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권역별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정상추진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이행과제 점검 결과 (23.12. 기준)
균형발전기반 생활SOC 확충 (생활SOC)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5개)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문화 확대	정상추진
		공공(작은)도서관 확대 운영	정상추진
		지역균형 서울형 키즈카페확대	정상추진
		지역균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상추진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정상추진
	생활SOC 미래수요 대응 (5개)	서울시 미래대응형 생활SOC 공급전략 마련	완료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강화	지연
		보건지소확충 운영 지원	정상추진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정상추진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정상추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교통)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5개)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로철도망 구축	지연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지연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설치	정상추진
		버스노선 조정 및 관리·운영	정상추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인프라 구축	정상추진
	지역간 이동성 개선 (7개)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방안 마련(서남권 일대)	완료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	지연
		간선도로 지하화(동부간선도로)	지연
		간선도로 지하화(경부간선)	정상추진
		간선도로 지하화(강변북로 재구조화)	정상추진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정상추진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정상추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지연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주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4개)	역세권 활성화	정상추진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상추진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지연
		저층주거지 및 노후 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	정상추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개)	노후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확대	정상추진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이행과제 점검 결과 ('23.12. 기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	지역·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 조성 (5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서울런	정상추진
		초·중·고등학교 문화공연 관람 지원	정상추진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정상추진
		장노년층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수용역량 강화	정상추진
		평생학습도시 핵심 브랜드, 서울시민대학 운영	정상추진
	교육 인프라 개선 (2개)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	정상추진
		한걸음에 달는 동네배움터운영 지원	정상추진

## 지연 사업(이행과제) 유형 원인 분석

### ① 경제여건, 정책방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연



- 상암·수색 일대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균형발전본부)
  - DMC역 복합개발: '21.5월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 이후(롯데→市)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최근 고금리, 건축비 상승 등), 공공기여량 산정 등으로 인해 제안자측(롯데DMC개발(주)) 사업계획 조정 검토 중이며, 공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제안서 보완 제출을 통해 사전협상 개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철도시설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서울시 수색·DMC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맞추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가 늦춰졌으며('22 → '23), '23, 말 국토부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예정임
- 서울혁신파크 복합개발(균형발전본부)
  - 사업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재검토 증으로 지연 예상되며, 기존 입주단체 퇴거에 대한 민원발생 대응책 및 퇴거 이후 주변지역 우범화 예방 대책 등 착공 전, 부지 임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산업· 일자리 (서남권)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온수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新도심 공원의 재구조화, 여의도공원 3.0

• 온수 공영차고지 복합개발(균형발전본부)

- 선도사업인 강일,장지차고지 공공주택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중이며, 부지가 협소(1만㎡)하여 차고지 별도 건립 불가, 차고지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등 현장의 물리적 한계 및 정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공공주택·차고지 복합화가 어려운 상황임. 현재, 「서울 서부권 교통시설 입체화 구상수립」(’22~) 용역은 타절준공(’23.10.)된 상태임
-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공영차고지·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 결과(’23.12.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추진) 및 ’24년 추진예정인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결과(~’24.12)를 고려하여 추진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도시교통실)

-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자재비 상승, 공사비 증가, 금리 상승, PF자금조달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계획 수립을 변경하면서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늦춰짐

• 新도심 공원의 재구조화, 여의도공원 3.0(미래공간기획관)

- 서남권역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한강과 어우러진 수변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도입을 발표하면서(’23.3.) 사업의 규모도 확대됨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위치를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변경하면서 문래동 인근 주민, 지역의원 반대 민원 대응 등 리스크 관리 필요함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산업· 일자리 (동북권)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

•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균형발전본부)

-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사업 관련하여 미래성장거점 지역입지 및 교통여건 상 핵심 앵커시설(서울대병원) 조성계획 변경 등 어려움이 예상됨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공사계약, 금융약정 체결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착공 지연 불가피하게 되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23.10.3.) 내 신청 및 착공('23.11.) 일정에 차질없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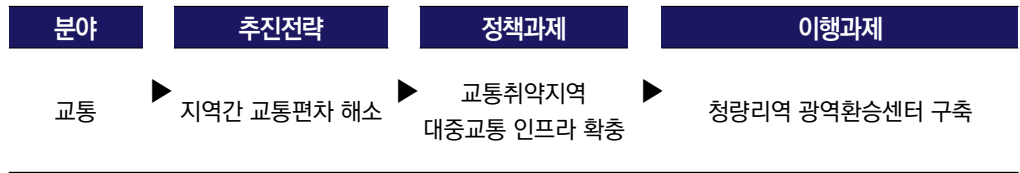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GTX-C노선 도봉구간 결정 지연(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결정)에 따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공정 순연이 불가피함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산업·일자리 (동남권)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장지차고지 입체화 -체육문화시설 건립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균형발전본부)
  -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상승에 의한 PF자금 조달 악화뿐만 아니라 돔구장 건설, 단지 재배치 검토 및 시설별 재설계 등 협상에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 일정이 순연되고 있음
- 장지차고지 입체화-체육문화시설 건립(주택정책실)
  - 임대주택 혁신방안(평형확대), 버스차고지 화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간구조 변경(버스박차장 지하→지상), 생활SOC 면적 증가(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공정 지연이 예상됨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산업·일자리 (도심권)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 용산공원 조성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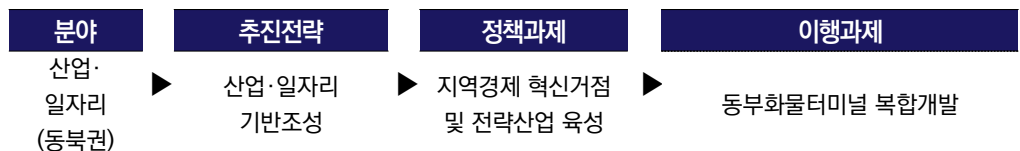
- 용산공원 조성(미래공간기획관)
  - 국가주도 사업으로 서울시 참여 및 역할에 한계가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조성 추진 일정에 따라 유연한 대응 필요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관광체육국)
  - 당초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매입방식에서 도심권역 민간개발 기부채납시설 활용으로 조성방식 변경('22.6.)으로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지연으로 완공이 2년정도('27→'29년) 늦춰짐



•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시교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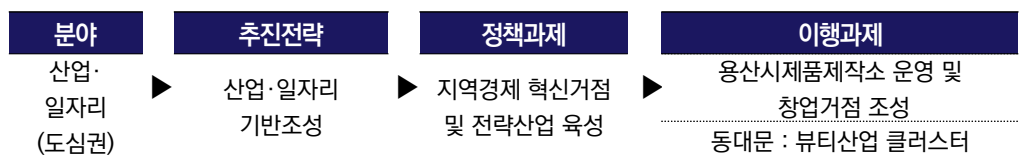
- 청량리역 환승센터(안)의 경제적 타당성 저조로 단독 설치는 어려워, 청량리역 일대 장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환승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 市-관계기관(국토부 등) 간 개발방향 및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의 및 협력 필요

② 지역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 갈등에 따른 지연



• 동부화물터미널 복합개발(미래공간기획관)

- 물류시설 도입 시 주변 교통 혼잡, 안전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동대문구 간 사업추진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연이 우려됨



•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및 창업거점 조성(경제정책실)

- 상상가 리모델링 추진 중 해당 부지 민원,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 시행하여 창업 기업 입주공간을 당초 계획 25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 운영 중이며, 당초 계획대로 25개소 운영을 위한 입주 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동대문 : 뷰티산업 클러스터(경제정책실)

- (뷰티허브 조성) DDP패션몰 이전 상인 우선권을 위한 패션몰 3층 신규입점 제한에 대한 상인협의회의 지속적 신규입점 재개 민원해소에 따른 시간소요

- (뷰티패션 특구지정) 市 진흥계획 수립용역과 區(중구) 진흥지구 지정용역 간 연계를 위해 市 진흥계획 수립용역 기간연장

### ③ 예타 통과, 법령개정 등 사전절차 추진기간 소요에 따른 지연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산업·일자리 (서남권)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 김포공항 일대 서남권 복합산업혁신거점 조성 경인로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거점개발

- 김포공항 일대 서남권 복합산업혁신거점 조성(균형발전본부)
  -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타당성재조사(예타) 통과가 지연되면서('22. 10.→'23. 6.)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고, 혁신지구 공모 선정조건(GB해제) 이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정 건의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고시 협의 등으로 김포공항 혁신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음
- 경인로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거점개발(도시계획국)
  - 준공업지역 혁신방안 마련 및 조례개정을 위한 정책기획 추진 중(~'24.6.)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교통	▶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간 이동성 개선	▶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로철도망 구축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

-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로철도망 구축(도시교통실)
  -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도시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기본계획 등 후속조치 추진이 가능하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
  - 현재 4개 노선(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KDI 예타 진행중으로('21.10. 착수), '23년 내 결과발표 예정임. 한편, 경제성분석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에 따른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도시계획국)
  -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중으로 법 제정에 따라 향후 절차 이행 지연이 예상됨

- 市 차원의 철도지하화 실현 전략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안('22.~현재)
- 국토부(철도건설과) 추진 중 사항으로, 법안 제정 일정은 국회 상황 등 고려, 유동적일 수 있음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주거	▶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주택정책실)

-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23.1.) 등 주택공급 확대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단기간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④ 중앙정부, 자치구 등 관계 기관 협의 장기화로 인한 지연

분야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산업·일자리 (서남, 동북권)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 옛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입체복합개발 공릉동 IT·바이오·나노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화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 개발

• 옛 노량진수산시장 일대 입체복합개발 (미래공간기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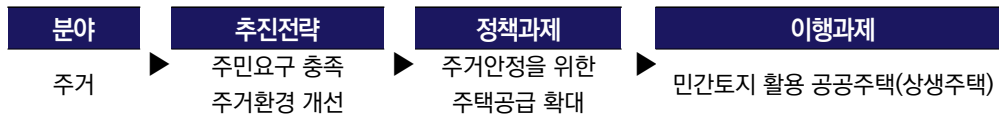
- (수도자재센터 부지)사업별 추진 주체 및 일정이 상이하여, 하자 책임이 불명확하고 공정간섭이 발생함
- (노량진역사) 기존 사업자 회생절차 진행중이나, 국가철도공단은 별도 민간사업자 공모 검토 등으로 기관 간 입장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됨
- (수협부지) 수협중앙회가 부지 개발 사업자 공모 후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한편, 현재 PF시장 침체로 기반시설 건립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공릉동 IT·바이오·나노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화 (경제정책실)

- 사업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대체 교육시설 확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한편, 최근 한전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 참여 의지가 저조함
- 대상부지 내 연구용 원자로 해체사업 진행중으로 완료 전('25.12월 목표)까지 부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 개발(미래공간기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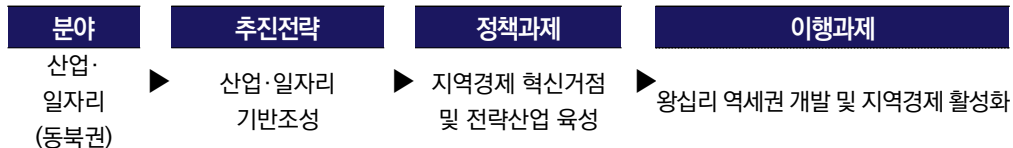
- 대규모 부지(156,491㎡)로 사전협상 완료 이후 제반 절차 이행(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완료) 및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조정 등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추진계획 일정이 지연됨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주택정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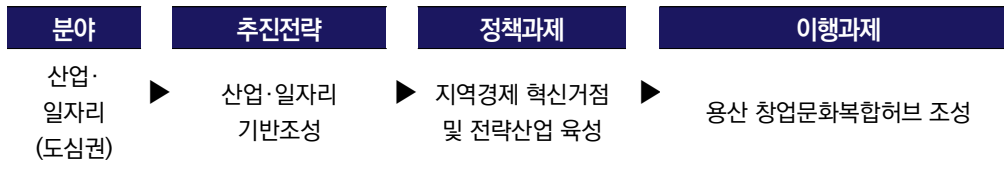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대상지 선별,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주와의 협의 등으로 추진이 지연됨

⑤ 기타: 시설 및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지연 등



• 왕십리 역세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시계획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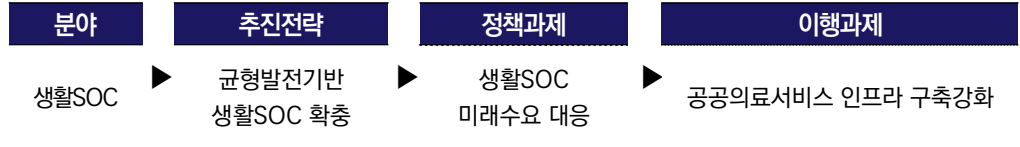
-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변경(218,000㎡ → 251,877㎡) 검토 등 계획(안) 추가 검토에 따른 지연이 예상됨



• 용산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 (미래공간기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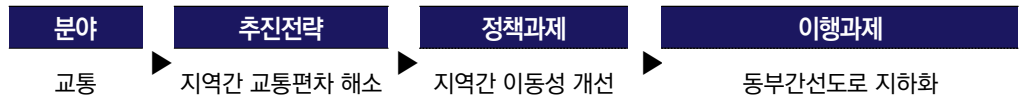
- 용산유수지 재정비에 따른 국유지 개발가능 면적 검토(용산유수지 내부측량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증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됨

- 도시재생목적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과 관련하여 기재부 및 법제처 협의 필요한 상황임



-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강화 (시민건강국)

-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공기연장 등 일부 사업에서 지연요인이 발생함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난안전관리실)

- '22.12월 소방법 개정으로 시설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능위주 설계심의 절차 추가 등으로 실시 설계 지연
- 환기소(성동구), 급기소(동대문구)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관리 필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추진 절차상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 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사업추진 절차상 위험성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간선도로(경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정 초기 단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지역주민 민원, 경제성 부족 논란, 적격성조사 등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재조성' 사업은 사업부지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이 포함됨에 따라 환경단체 반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 및 보상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마곡 혁신적 R&D 클러스터 조성', '평생학습도시 핵심 브랜드, 서울시민 대학운영' 등 사업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후 절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 6. 종합

### 분야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진척도 계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지연되고 있는 28개 사업은 ①경제여건, 정책방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연, ②지역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 갈등에 따른 지연, ③예타 통과, 법령개정 등 사전절차 추진기간 소요에 따른 지연, ④중앙정부, 자치구 등 관계 기관 협의 장기화로 인한 지연, ⑤기타 총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5대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교통, 주거,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84개 이행과제의 달성도를 바탕으로 분야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의 진척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과제 중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사업의 진척도가 50~60%대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은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분야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의 사업 진척도

분야	구분	원료	정상추진	지연	합계	진척도 (원료+정상추진)		
산업·일자리	추진전략	산업·일자리 기반조성(49)		2%	55%	43%	100%	57%
	정책과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46)		2%	52%	46%	100%	54%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3)		0%	100%	0%	100%	100%
생활SOC	추진전략	균형발전기반 생활SOC 확충(10)		10%	80%	10%	100%	90%
	정책과제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5)		0%	100%	0%	100%	100%
		생활SOC 미래수요 대응(5)		20%	60%	20%	100%	80%
교통	추진전략	균형발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12)		8%	58%	33%	100%	67%
	정책과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5)		0%	60%	40%	100%	60%
		지역간 이동성 개선(7)		14%	57%	29%	100%	71%
주거	추진전략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6)		0%	67%	33%	100%	67%
	정책과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4)		0%	50%	50%	100%	50%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2)		0%	100%	0%	100%	100%
교육	추진전략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7)		0%	100%	0%	100%	100%
	정책과제	지역·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 조성(5)		0%	100%	0%	100%	100%
		교육 인프라 개선(2)		0%	100%	0%	100%	100%



# V 종합평가

---

- 1 종합평가의 개념
- 2 분야별 종합평가
- 3 종합



# 1. 종합평가의 개념

## 진척도와 성과지표를 활용한 종합평가

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결과(진척도)지표와 성과지표 비교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종합평가란 실시된 사업의 결과(진척도)가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는 어느정도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진척도)지표와 성과지표 비교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결과(진척도)지표와 성과지표 모두 높게 나타난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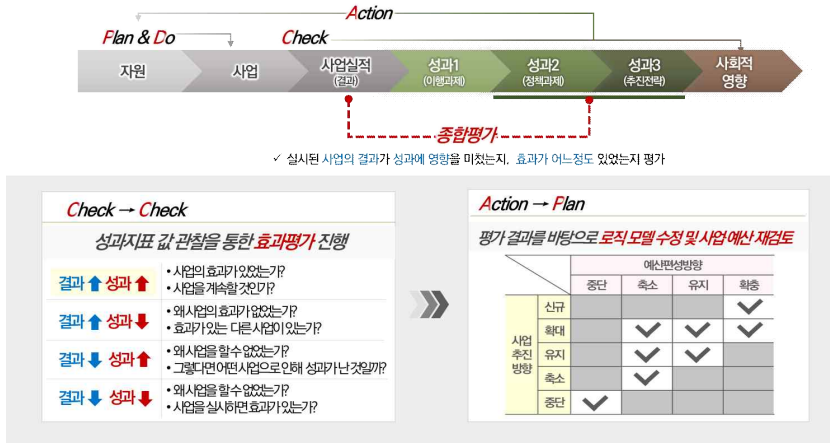
두 번째 유형은 결과(진척도)지표는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지표는 낮게 나타난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의 효과가 없었는가를 파악하고, 효과가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결과(진척도)지표가 낮게 나타난 한편, 성과지표는 높게 나타난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다면 어떤 다른 사업의 영향으로 성과가 나타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네 번째 유형은 결과(진척도)지표와 성과지표 모두 낮게 나타난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결과(진척도)지표와 성과지표 비교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예산 편성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즉,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예산 편성을 중단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확충할 것인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을 통해 차기 계획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 강화를 도모한다.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방향 재검토**



[그림 V-1] 결과지표와 성과지표 비교를 통한 종합평가의 개념

### 현 과제에서의 종합평가 한계

앞서 설명하였듯, 결과(진척도)지표와 성과지표 비교를 바탕으로 한 종합평가는 지역 균형발전계획 내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예산 편성 방향을 재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최근(2022년 12월)에 발표되면서 계획에 따른 사업들 대부분이 진행 초기 단계이며, 구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2020년~2022년 사이 데이터가 가장 최신 데이터이다. 즉, 성과가 결과(사업 진척)보다 먼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과제에서는 종합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는 성과지표와 결과지표 비교를 통한 정책 개선 방안 제시는 불가능하며, 현 상태에서의 성과지표는 균형발전계획 정책추진의 근거로서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2차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전에 실시되는 2차 모니터링은 결과(진척상황)와 성과(정책성과) 시점이 동일하게 되므로 비교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및 예산편성 방향 검토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정책 개선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V-2] 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평가 및 종합평가의 한계

따라서 이 과업에서는 가장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지표를 구축하여, 향후 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선(baseline)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또한, 구축한 성과지표와 진척도(결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진척에 대한 원인 분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노력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2. 분야별 종합평가

### 2.1 산업·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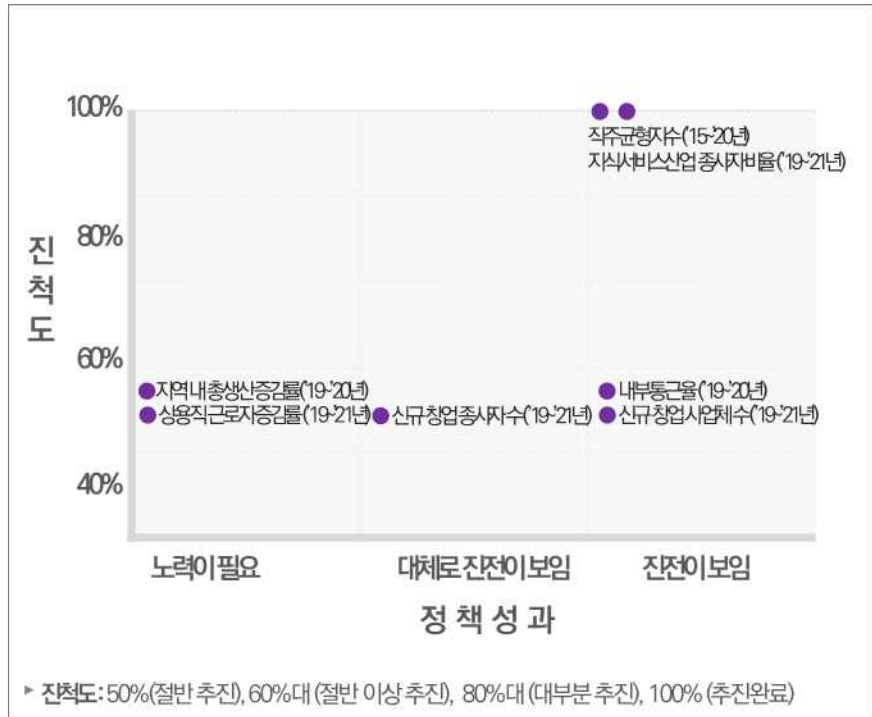
산업·일자리 성과지표 중 지역 내 총생산은 2019년 대비 2020년 16개의 자치구에서 증가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자리 거점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2019년 대비 2021년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였고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대비 2021년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표 V-1] 산업·일자리 정책성과 및 진척도

구분		지표	정책성과	진척도
추진 전략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	노력이 필요	57%
		내부통근율	진전이 보임	
정책 과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신규 창업 사업체 수	진전이 보임	54%
		신규 창업 종사자 수	대체로 진전이 보임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노력이 필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일자리 자족 기반 확충	직주균형지수	진전이 보임	100%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진전이 보임	
쇼핑·업무 통행의 유입량		-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4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기준 이행과제 점검 결과, 46개 중 21개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연 원인 대부분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건설자재비 상승, 공사비 증가, 금리 상승, PF 자금조달 등)와 정책 방향의 변화(사업의 규모 확대, 부지 변경 등), 그리고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절차에서의 추진 기간 지연(예비타당성 통과 지연, 법령개정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 산업·일자리 종합평가 그래프

## 2.2 생활SOC

생활SOC 성과지표 중 문화환경 만족도는 14개 자치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환경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는 약간 저하되었으나 그 값이 크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일 수록 생활SOC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사회복지비중 등을 고려하여 열악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접근성 소외인구는 2019년 대비 2022년 12개의 자치구에서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에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는 2019년 대비 2021년 22개의 자치구에서 증가하였고,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2] 생활SOC 정책성과 및 진척도

구분		지표	정책성과	진척도
추진 전략	균형발전기반 생활SOC 확충	문화환경 만족도	노력이 필요	90%
		생활권공원 접근성(소외인구)	-	
		도서관 접근성(소외인구)	노력이 필요	
정책 과제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노력이 필요	100%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진전이 보임	
	생활SOC 미래수요 대응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소외인구)	-	80%
		1인당 보건예산액	대체로 진전이 보임	

현재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을 위해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중 1개의 사업(서울시 미래대응형 생활SOC 공급전략 마련)이 완료, 8개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1개)은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강화’로 시립병원 신·증축 관련하여 사업 규모 조정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공기연장 등 일부 사업에서 지연요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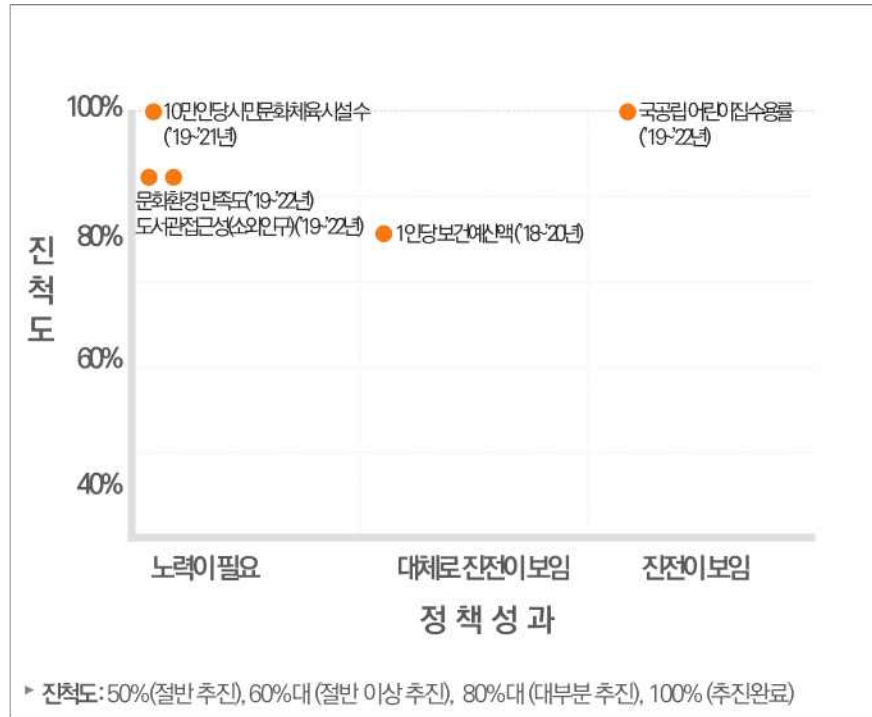
앞서 노력이 필요하였던 도서관 접근성 향상(보행생활권 실현 도모)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우선 지원 대상 자치구 12개를 선정하여 공공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립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및 자료 구매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27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향후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및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생활체육시설 평균(101㎡ / 1천명) 이하 자치구로, 16개 지역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 비중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현재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지역균형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권역별 불균형 해소



를 위한 공원 조성 등 균형발전에 기반한 생활SOC확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규모 생활SOC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조정 및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사업 추진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V-4] 생활SOC 종합평가 그래프

## 2.3 교통

교통 성과지표 중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 지하철)는 2019년도 대비 2022년 19~20개의 자치구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 지하철)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는 약간 악화되었으나, 그 값이 크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도로 통행속도는 2019년 대비 2022년 21개 자치구에서 악화되었으며, 주요도로 통행속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는 모두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V-3] 교통 정책성과 및 진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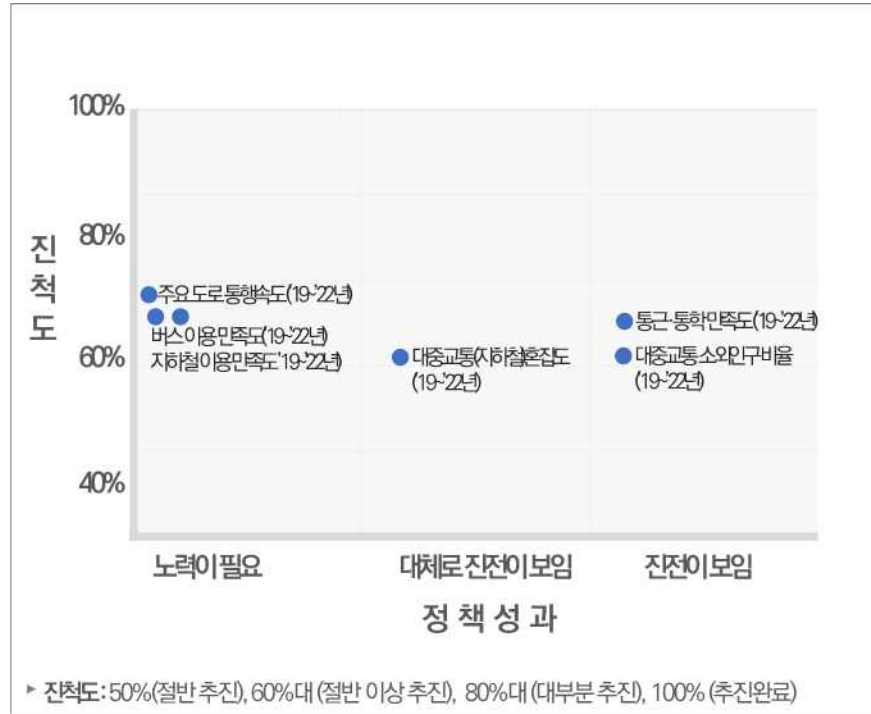
구분		지표	정책성과	진척도
추진 전략	균형발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	노력이 필요	67%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지하철)	노력이 필요	
		우회도	-	
		통근·통학 만족도	진전이 보임	
정책 과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소외인구 비율	진전이 보임	60%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대체로 진전이 보임	
	지역간 이동성 개선	주요 도로 통행속도	노력이 필요	71%
		중심지로의 이동거리	-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를 위해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5개, 지역간 이동성 개선을 위한 사업 7개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는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로철도망 구축'이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 교통소외지역(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4개 노선(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KDI 예타 진행중인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

로 사업 일정이 순연되고 있으며,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나 단독 설치에 어려워, 향후 청량리역 일대 장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동북권의 환승 편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간 이동성 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서울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증으로 법안 제정 일정이 유동적임에 따라 향후 절차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22.12월 소방법 개정으로 성능위주 설계심의 절차 추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기구(성동구), 급기소(동대문구)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리스트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수요 변화와 교통 사각지역 버스 연계 등을 고려한 버스노선 조정 운영, 심야버스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이동성 개선을 위해 도로확장, 도로 신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도시철도의 급행화, 직결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V-5] 교통 종합평가 그래프

## 2.4 주거

주거 성과지표 중 주거환경 만족도는 2019년 대비 2021년 1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높아졌다.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는 약간 나빠졌으나, 그 값이 크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 교통, 녹지, 상하수도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은 2019년 대비 2021년 16개의 자치구에서 증가하였고,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권역들은 대체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거나, 차량 접근 불가능 필지가 많거나, 소규모 필지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정비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확보율은 2019년 대비 2021년 14개의 자치구에서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는 약간 나빠졌으나, 그 값이 크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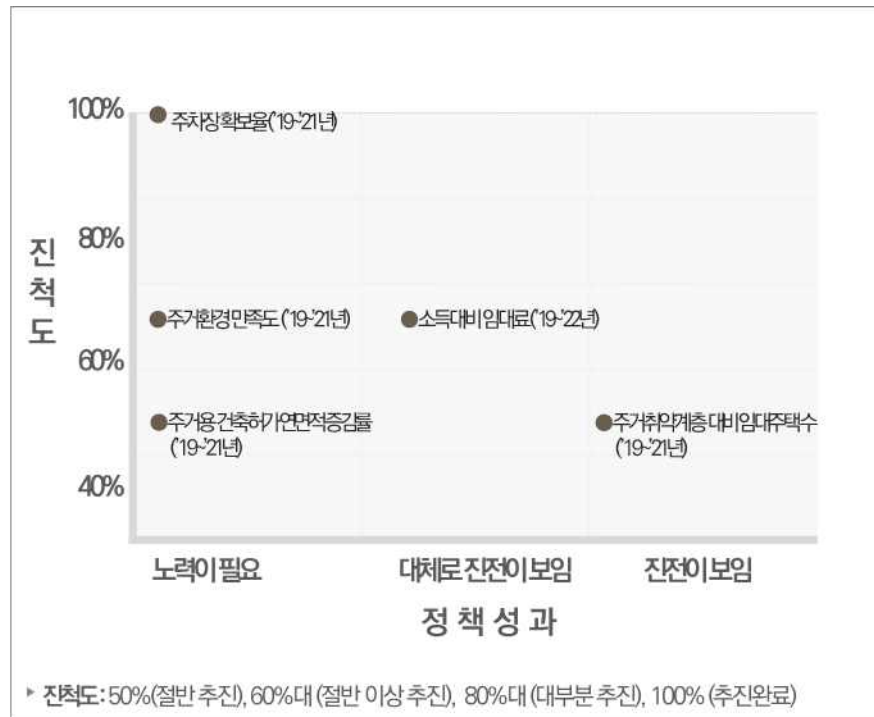
[표 V-4] 주거 정책성과 및 진척도

구분		지표	정책성과	진척도
추진 전략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만족도	노력이 필요	67%
		소득대비 임대료	대체로 진전이 보임	
정책 과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노력이 필요	50%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진전이 보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차장 확보율	노력이 필요	100%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지원 및 지속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쾌속 주택공급(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공공택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절차 지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격한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정주성 증진을 위해 거주환경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및 노후불량주택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 50% 미만 행정동에 주차장 건설 지원을 하고 있다. ‘노후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확대’ 사업은 서울시 자체에서 금천구, 광진구, 용산구 등에 직접 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반영하여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 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노후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확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한편, 건설 자재비 상승, 높은 지가 등 경제적 여건 악화와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림 V-6] 주거 종합평가 그래프

## 2.5 교육

교육 성과지표 중 교육환경 만족도는 2019년 대비 2022년 19개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환경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는 약간 나빠졌으나, 그 값이 크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별·계층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2019년 대비 2021년 11개의 자치구에서 증가하였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 지표는 나빠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V-5] 교육 정책성과 및 진척도

구분		지표	정책성과	진척도
추진 전략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환경 만족도	노력이 필요	100%
	지역·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 조성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	진전이 보임	100%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노력이 필요		
정책 과제	교육 인프라 개선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	-	100%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	-	

현재 서울시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발굴 및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대학 캠퍼스별(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동네배움터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교육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기초수급권자,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 등에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시설 확충,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제공 등 생애주기별 균등한 교육기회 및 인프라를 제공하여 교육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V-7] 교육 종합평가 그래프

### 3. 종합

정책성과(성과지표)와 진척도(결과지표)를 활용한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V-8]과 같다. [그림 V-8]은 과거 발생한 정책성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노력이 필요') 정책성과를 유지 및 증진('대체로 진전이 보임', '진전이 보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현재 이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V-8] 5대 분야 종합평가

종합평가 결과, 서울시는 노력이 필요하였던 부문의 격차 해소를 위해 착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이 필요한 성과지표에 대한 사업 대부분은 60% 이상의 진척을 보이는 한편, 50%대의 진척도를 보이는 사업은 주거 분야 지표 1개('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산업·일자리 분야 지표 4개('신규 창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지역 내 총생산증감률')로 나타났다.

50%대 진척도를 보이는 사업은 대체로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건설자재비 상승, 공사비 증가, 금리 상승 등)와 정책 방향의 변화(사업의 규모 확대, 부지 변경 등), 그리고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절차에서의 추진 기간 지연(예비타당성 통과 지연, 법령개정 지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분야(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의 경



우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 기간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정부 및 환경변화 대응에는 개별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본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기능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의 경우, 경제성 위주로 평가가 수행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권의 사업성은 높게 나오고 다른 지역의 사업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현행 경제성 위주 평가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 개선 등 정책의 효과성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부록 대시민 공개자료

---

1 개요

2 분야별 지표



# 1. 개요

## 2022년 12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발표

서울시는 2022년 12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서울시의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5개 분야(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 5대 추진전략, 10개 정책과제, 88개 이행과제와 다양한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서울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 균형발전 기준점 설정을 위한 시범 성격의 1차 연도 성과 모니터링 필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제6조에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 정도 및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진단·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2년에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평가의 결과가 차기 정책 및 사업추진에 연계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진단·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략 및 핵심과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지표(안)를 설정하였다.

〈부록1〉은 설정된 모니터링 지표(안)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진단·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점을 제시하는 1차 연도 성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작성된 대시민 공개자료이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의 선정 근거(지표의 정의, 산정식 및 출처)를 제시하고, 지표 분석을 종합하여 현상과 성과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마련된 지표(안)는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재조정되고,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 및 유용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다.

추진전략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 지향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반 강화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

정의·의미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은 일정 기간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 시장가격 합의 연평균 증감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 내 총생산은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대체로 국가 GDP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산정식	$(\text{기준연도GRDP} \div \text{비교연도 GRDP})^{\text{기간}-1}$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2019, 2020)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은 연평균 2.0% 증가하였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6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으며, 9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도 약간 벌어졌다.

내부통근율

정의·의미	내부통근율은 A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지 않고 A지역 내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로, 내부통근율이 높을수록 주거지 주변에 가용일자리 수가 많다는 것을 (직장과 주거지 간 근접성이 높음) 의미한다.
산정식	$(\text{A지역 출발} \rightarrow \text{A지역 도착 통근자수 합} \div \text{A지역의 출발 통근자수 합}) \times 100$
출처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2019, 2020)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시 내부통근율은 2%p 상승하였으며, 직주근접이 개선되었다. 내부통근율은 감소한 1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24개)에서 증가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주거, 교육, 교통 등 지역간 불균형 해결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

(도심권) 전략: '서울 도심으로의 위상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용산 국제업무 거점 및 문화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 산업과 시장이 공존하는 도심 속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도심권 내 밀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중

(동북권) 전략: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창동·상계 일대 동북부지역 중심도시 육성 추진, 홍릉·공릉 등 대규모 R&D 단지 등과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계·협력하여 신성장 산업 특화 육성 등 사업 추진 중

(서북권) 전략: '미래산업 고용 기반 확충을 통한 중심기능 강화'

- 상암 DMC역 중심의 서북부 광역 고용 기반 확충 및 DMC 기능 기반으로 복합·문화관광 중심산업 기능의 광역중심 육성 추진 중

(서남권) 전략: '신성장 산업거점 및 금융산업 도심 생태계 육성'

- 저이용 부지 및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거점 조성, 지역별 특성화 거점을 개발 및 연계하여 경제거점벨트 조성 및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마곡 혁신적 R&D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동남권) 전략: '글로벌 상업 업무기능 강화'

- 양재를 중심으로 잠실, 판교 등 연계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첨단CT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중이며, 강남, 삼성 일대 집적된 중심기능과 업무·상업기능을 기반으로 국제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개발 추진 중

정책과제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지향점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 기반 조성

신규 창업 사업체 수

정의·의미	지역에 새롭게 창업한 사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된다.
산정식	당해연도에 신규 창업한 사업체 수
출처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의 신규 창업 사업체 수는 29.1% 증가하였다. 신규 창업체 수는 2개의 자치구에서 감소, 23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신규 창업 종사자 수

정의·의미	지역에 새롭게 창업한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
산정식	당해연도에 신규 창업한 사업체의 종사자 수
출처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의 신규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4.7% 감소하였다. 신규 창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모든 자치구(25개)에서 감소하였으나,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상용직 근로자 증감률

정의·의미	상용직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통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산정식	$(\text{기준연도 상용근로자 수} \div \text{비교연도 상용근로자 수})^{\text{기간}-1}$
출처	전국사업체 조사(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의 상용근로자 수는 5.4% 증가하였다. 상용직 근로자는 모든 자치구(25개)에서 증가하였으며,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권역별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권은 창업기업 입주공간 마련을 위한상상가 리모델링 추진, 동북권은 산업기반시설이 열악한 창동 일대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서북권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산업 고도화 및 4차산업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서남권은 인재를 연계한 서울대 인근 서남권 창업허브 조성 추진, 동남권은 수서 글로벌 로봇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용산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도심권), 공릉동 IT·바이오·나노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동북권),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중소기업 안심 일자리 창출 지원(서북권), 여의도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등 양성(서남권), 강동, 첨단CT산업단지 조성, 고덕 비즈밸리중심 경제거점 육성(동남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정책과제</b>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일자리 자족 기반 확충	▶	<b>지향점</b>	지역자원을 활용한 혁신 기반 조성 및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
-------------	------------------------------	---	------------	--

**직주균형지수**

<b>정의·의미</b>	직주균형지수는 지역의 취업자 수 대비 종사자 수 비율로, 직주균형지수가 1이 넘으면 취업자 수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종사자 수가 많아 지역의 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b>산정식</b>	종사자 수 ÷ 취업자 수
<b>출처</b>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인구총조사 (2015, 2020)
<b>현상 및 성과</b>	2015년 대비 2020년 서울시 직주균형지수는 9.2% 증가하였다. 직주균형지수는 2개 자치구에서 감소, 23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약간 벌어졌다.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

<b>정의·의미</b>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되며,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b>산정식</b>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 종사자 수) × 100
<b>출처</b>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2019, 2021)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시 종사자 중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p 증가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는 모든 자치구(25개)에서 증가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쇼핑·업무 통행의 유입량**

<b>정의·의미</b>	쇼핑 및 업무를 목적으로(목적통행량) 지역에 유입된 통행량을 의미하며, 쇼핑·업무 통행량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수도권 내로 한정)에서 유입된 통행량도 포함하였다.
<b>산정식</b>	목적통행량 중 쇼핑 및 업무 목적의 도착통행량
<b>출처</b>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2020)
<b>현상 및 성과</b>	2020년 서울의 전체 유입 쇼핑·업무 통행량(통행/일)은 총 2,490,720 통행/일로 나타났다. 쇼핑·업무 통행량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권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통근·통학 소요 시간 감소 등 직주(직장-주거지) 근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상업지역, 직주균형지수 등을 고려하여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상업지역 배분하여 상업·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발굴 및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개발 및 인구 유입량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추진전략** 균형발전 기반 생활편의시설 확충



**지향점**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질 높은 생활편의시설 공급

**문화환경 만족도**

<b>정의·의미</b>	문화환경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b>산정식</b>	리퀴드 5점 척도→10점 환산
<b>출처</b>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9, 2022)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1.27% 증가하였다. 문화환경 만족도는 14개 자치구에서 증가, 11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생활권공원 접근성(소외인구)**

<b>정의·의미</b>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서는 생활권공원을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권공원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은 지역 인구 중 도보로 10분 이내 생활권공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b>산정식</b>	$(\text{생활권공원 소외인구} \div \text{지역 내 전체 인구 수}) \times 100$
<b>출처</b>	국가공간정보포털, 국토정보플랫폼 격자인구 (2022)
<b>현상 및 성과</b>	2022년 서울의 생활권공원 소외인구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생활권공원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약간 벌어졌다.

**도서관 접근성(소외인구)**

<b>정의·의미</b>	도서관은 개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은 지역 인구 중 도보로 10분 이내 도서관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b>산정식</b>	$(\text{도서관 소외인구} \div \text{지역 내 전체 인구 수}) \times 100$
<b>출처</b>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토정보플랫폼 격자인구 (2019, 2022)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도서관 접근 소외인구 비율은 0.8%p 증가하여 도서관 접근성이 악화되었다. 도서관 접근 소외인구 비율은 13개 자치구에서 증가(악화), 12개 자치구에서 감소(개선)되었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은 양호, 양극화는 약간 벌어졌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환경 조성, 10분 이내 도서관 접근 가능 도시 조성, 서울시 전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거리에 공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 평균 이하 자치구에 특별 지원, 우선 지원 자치구 선정을 통한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및 자료 구입비 지원,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원녹지 활용 가능지 우선 발굴 및 조성(생활권내 소규모 공원 조성 확대) 등 시민의 니즈 충족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과제	생활편의시설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	지향점	도보권 내, 모두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쾌적한 문화·여가 공간의 확충
------	----------------------------	---	-----	---

###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

정의·의미	시민문화체육시설은 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포함되며, 시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이다.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시민문화체육시설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산정식	$(\text{시민문화체육시설 수} \div \text{지역 내 전체 인구 수}) \times 100,000$
출처	서울시, 서울시 기본통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시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는 5.95% 증가하였다. 10만인당 시민문화체육시설 수는 22개 자치구에서 증가, 3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정의·의미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은 전체 보육아동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산정식	$(\text{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div \text{전체보육 아동 수}) \times 100$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2019, 2022)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은 9.7%p 증가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은 감소한 1개의 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24개)에서 증가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 종목 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평균 이하 자치구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비중'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시설비를 평균 이하 비강남권 자치구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지원을 통한 행복한양육환경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문화·여가 공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과제 생활편의시설 미래수요 대응

지향점 건강한 미래가 보장된 생활권 조성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소외인구)

정의·의미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은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은 지역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중 도보 10분 이내 노인복지시설 접근이 불가능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유형으로 노인복지관(소규모 포함), 노인교실을 포함하였다.
산정식	(노인복지시설 소외지역 고령인구 ÷ 지역 내 고령인구) × 100
출처	서울복지포털, 국토정보플랫폼 격자고령인구 (2023)
현상 및 성과	2023년 서울의 노인복지시설 접근 소외인구 비율은 82.4%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노인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보건예산액

정의·의미	1인당 보건예산액은 인구 대비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보건예산 총액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연관된 예산으로 보건소 운영, 감염병 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사용된다.
산정식	자치구 보건 예산 총액 ÷ 지역 내 전체 인구 수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간강격차모니터링 (2018, 2020)
현상 및 성과	2018년 대비 2020년 서울시 1인당 보건예산액은 8.97% 감소하였다. 1인당 보건예산액은 5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고, 20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거점병원 역할수행을 위한 시립병원 확충, 자치구당 소생활권 중심의 보건지소를 확충하되, 취약지역 및 인구대비 공공보건기관 부족 지역 우선 설치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양과 질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높은 자치구에 대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및 운영비 우선 지원, 노인요양시설 복합화를 통한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전략** 균형발전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지향점**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쾌적한 공공교통 확충과  
정체 없는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버스, 지하철)**

<b>정의·의미</b>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b>산정식</b>	리퀴드 5점 척도→10점 환산
<b>출처</b>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9, 2022)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버스 이용 만족도는 3.5% 증가하였고, 19개 자치구에서 증가, 6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 만족도는 3.26% 증가하였고, 20개 자치구에서 증가, 5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우회도**

<b>정의·의미</b>	우회도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대비 실제 통행과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직선거리가 같더라도 더 많은 이동시간이 소요된다면 대중교통 이동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산정식</b>	A지역과 B지역 사이의 직선거리 ÷ A지역과 B지역 사이의 대중교통 이동시간
<b>출처</b>	교통카드데이터 (2018)
<b>현상 및 성과</b>	2018년 서울시 평균 대중교통 통행속도는 약 15.7km/h로 나타났다. 우회도로 살펴본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통근·통학 만족도**

<b>정의·의미</b>	통근·통학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통근 및 통학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통근·통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b>산정식</b>	리퀴드 5점 척도→10점 환산
<b>출처</b>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9, 2022)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통근·통학 만족도는 6.78% 증가하였다. 통근·통학 만족도는 20개 자치구에서 증가, 1개 자치구는 유지(동일), 4개 자치구는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권역별 균형발전과 도시교통 여건 변화에 적합한 대중교통망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하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 기존철도 활용방안 모색, 버스노선 조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내려 최종목적지까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로 확장, 도로 신설, 도로 지하화 등 상습 정체구간 정비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과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향점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교통 중심의 시민 이동권 확대

대중교통 소외인구 비율

정의·의미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도보 5~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반경 500m 이내의 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지하철역 반경 500m 외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지하철 접근성 소외인구 비율로 보았다.
산정식	(지하철역 500m외 인구 ÷ 지역 내 전체 인구 수) × 100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격자인구 (2019, 2022)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은 1.4%p 감소하였다. 대중교통(지하철) 소외인구 비율은 15개 자치구에서 감소(개선), 10개 자치구에서 증가(악화)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

정의·의미	지하철 혼잡도는 열차 정원에 대한 승차 인원의 비율로 지하철 차량 내 사람 혼잡 정도를 의미한다. 지하철(상-하선)의 일일 최대 혼잡도를 산출하여 자치구별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산정식	(승차인원 ÷ 정원) × 100
출처	서울교통공사 (2019, 2022)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는 5.62%p 증가하였다. 21개 자치구에서 혼잡도가 증가, 4개 자치구에서 혼잡도 완화되었다. 대중교통(지하철) 혼잡도는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남·북, 동북권 등의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철도서비스 제공, 시민 이용 체감 편의 증진을 위한 기존 도시철도 급행화·직결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정보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설치 확대,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 노선조정,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수요에 대응한 공공자전거 신규 도입, 부족 지역 대여소 신규 구축) 인프라 구축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과제

지역간 이동성 개선

▶

지향점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증가

주요도로 통행속도

정의·의미	일반적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승용차의 통행속도가 느린 경우, 차량 정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차량 통행속도는 중요하다.
산정식	자치구별 주요도로 통행속도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 (2019, 2022)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주요도로 통행속도는 2.94% 감소(악화)하였다. 주요도로 통행속도는 21개 자치구에서 감소(악화), 4개 자치구에서 증가(개선)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중심지로의 이동거리

정의·의미	중심지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업무,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이 과업에서는 행정동 센터에서 중심지 센터(도심, 광역중심)까지의 최소거리를 구하여 자치구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심은 총 3곳(서울도심, 여의도·영등포, 강남)이며, 광역중심지는 총 7곳(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이다.
산정식	행정동 → 중심지(도심·광역중심)까지의 최소 거리(중심점 기준)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1)
현상 및 성과	2021년 각 행정동에서 도심 및 광역중심으로의 이동거리에 대해 자치구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중심지로의 평균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자치구와 가장 긴 자치구의 차이는 약 3배 정도이다. 각 행정동에서 도심 및 광역중심으로의 이동거리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인천시, 경기도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많은 서남권은 주요도로에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통행속도를 높이고, 중심지까지의 거리를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경부간선도로 등 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여 도로용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지역 간 생활권 연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당이수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 해소를 위한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등 시민의 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전략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지향점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만족도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정의·의미	주거환경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주택, 교통, 녹지,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산정식	리워드 5점 척도→10점 환산
출처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시 주거환경 만족도는 10.9% 증가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1개 자치구에서 감소, 24개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소득대비 임대료(중위수)

정의·의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가구당 월소득 중에서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쓰는 주택 월임대료 비율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정식	(월임차료 ÷ 가구 월소득)×100
출처	주거실태조사 (2019, 2022)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2년 서울시 소득 대비 임대료(RIR)는 4.1%p 증가(악화)하였다. 소득 대비 임대료(RIR)는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악화)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소득대비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지 특성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및 적용,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필요 시설 및 기능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약거주시설 및 노후 저층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책과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지향점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

정의·의미	건축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 후 건축 행위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증감률은 일정 기간 정해진 지역 내 건축허가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증감 비율을 의미한다.
산정식	(기준연도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 비교연도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sup>-기간-1</sup>
출처	건축통계정보시스템 (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시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 연평균 증감률은 14.4% 증가하였다. 주거용 건축허가 연면적은 총16개 자치구에서 증가, 9개의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도 약간 벌어졌다.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

정의·의미	여기서 말하는 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말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가구를 의미한다.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가 적을수록 취약가구의 주거가 불안정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산정식	임대주택수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실태조사, 인구총조사 (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는 46% 증가하였다. 주거취약계층 대비 임대주택 수는 모든 자치구에서 증가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은 양호, 양극화는 약간 벌어졌다.

정책과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향점 정주성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향상

주차장 확보율

정의·의미	주차장 확보율(주택가)은 등록된 자가용 등록대 수에 대한 주거지역 내 주차장 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자가용 등록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한편, 자가용 증가 속도 대비 주택가 주차장 면수는 한정적이어서 주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산정식	(주거지역 주차장면 수 ÷ 등록된 자동차 수) × 100
출처	열린데이터광장 (2019, 2021)
현상 및 성과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1.3%p 증가하였다. 주차장 확보율은 14개 자치구에서 증가, 11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양질의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 수시 선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지속 추진,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필요 시설 및 기능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공택지 부족으로 인한 공공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부지를 임차하고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주성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거주시설,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공사비 일부 지원 및 취약 거주시설의 경우,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자원 지원 추진하고 있다.



<b>추진전략</b>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b>지향점</b>	생애주기별 고른 교육기회 및 인프라 제공으로 서울시민 교육 만족도 향상
-------------	-------------	---	------------	--

**교육환경 만족도**

<b>정의·의미</b>	교육환경 만족도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설문조사)'에서 교육비, 교육여건 등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b>산정식</b>	리워드 5점 척도→10점 환산
<b>출처</b>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9, 2022)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2년 기준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는 6.9% 증가하였다. 19개 자치구에서 증가, 6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는 양호한 수준이다.

<b>정책과제</b>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 조성	▶	<b>지향점</b>	연령별, 계층별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환경 격차 완화
-------------	------------------	---	------------	--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

<b>정의·의미</b>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은 지역별 학생 수 대비 자치구별 교육 세출 결산액을 의미한다. 사용한 교육 예산액은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최종 교육 예산이며, 본청에서 투입된 교육 예산은 제외되었다.
<b>산정식</b>	교육세액 ÷ 총 학생 수(초·중·고)
<b>출처</b>	서울통계연보 (2019, 2021)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1년 서울시 1인당 투입 교육 예산액은 39.7% 증가하였다. 23개 자치구에서 증가, 2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좁혀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은 양호, 양극화는 약간 벌어졌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b>정의·의미</b>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과정 이외의 학습활동으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복지 증진에 중요하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자치구별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인구비율로 성인인구(만25세-79세) 수 대비 평생학습 참여자 수 비율로 나타난다.
<b>산정식</b>	(평생학습 참여자 수 ÷ 성인인구 수) × 100
<b>출처</b>	평생교육통계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19, 2021)
<b>현상 및 성과</b>	2019년 대비 2021년 기준 서울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은 90.6%p 증가하였다. 11개 자치구에서 증가, 14개 자치구에서 감소하였다. 과거 대비 지역 간 차이가 벌어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및 양극화도 약간 벌어졌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교육불균형 해소 및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20~30대 청년 구직자 대상의 4차산업 분야 실무 역량교육을 제공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장노년 디지털 정보수용역량 강화 교육 등 연령별·계층별 균등한 교육기회 및 인프라 제공으로 서울 시민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서울시민대학 캠퍼스를 조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 관람 경험이 부족한 초·중·고교생에 문화공연 관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책과제      교육 인프라 개선

▶      지향점      지역 간 공공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

정의·의미	청소년시설은 아동·청소년에게 자유롭게 휴식, 활동, 모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과업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만 9세 이상~24세 이하 인구를 청소년으로 보았으며,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청소년시설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산정식	$(\text{청소년시설 수} \div \text{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인구}) \times 100,000$
출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현황 (2021)
현상 및 성과	2021년 서울의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는 8.51개로 나타났다.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와 가장 적은 자치구 간 차이가 약 9.3배 차이가 난다. 10만인당 청소년시설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은 양호, 양극화는 약간 벌어졌다.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

정의·의미	동네배움터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조성되는 평생학습센터이다. 동네배움터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므로, 이 과업에서는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는 만 25세 이상 성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동네배움터 공간의 개수를 의미한다.
산정식	$(\text{동네배움터 개수} \div \text{만 25세 이상 성인인구}) \times 100,000$
출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현황 (2021)
현상 및 성과	2021년 서울의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는 2.6개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동네배움터가 존재하지 않는 자치구가 총 8 곳으로 나타나, 서울 평균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0만인당 동네배움터 개수의 지역 간 불균형은 약간 벌어졌다.

※ 지역균형을 위한 노력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 문화 휴식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등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타 자치구 대비 상대적으로 청소년 문화 및 휴식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평생교육시설 분포 격차를 해소하고자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동네배움터)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참여연구진

##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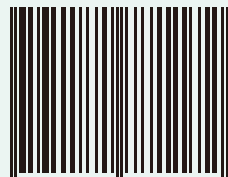
시장	오세훈
행정2부시장	유창수, 한제현(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균형발전팀장	김나연, 김형미(전)
주무관	이현승, 이경남, 장하늘

## 서울연구원

원장	박형수
연구책임	이주일
연구진	김지영, 유의진



비매품/무료  
93350



9 791171 771172  
ISBN 979-11-7177-117-2